投贈
寄簡

杜諺 九

分類杜工部詩卷之十九

投贈 古詩 一首 律詩 七首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紈袴不餓死儒冠多誤身 紈袴ᄂᆞᆫ貴遊子弟의오시라○기ᄂᆞ로ᄆᆞ외ᄒᆞᆫ사ᄅᆞᄆᆞᆫ주려주디아니ᄒᆞ거늘선비곳갈스니ᄂᆞᆫ모ᄆᆞᆫ해그르ᄆᆡᆼᄀᆞ놋다

丈人試靜聽賤子請具陳 丈人ᄋᆞᆫ指左丞ᄒᆞ고賤子ᄂᆞᆫ甫이自謂라○丈人ᄋᆞᆫ비로소ᄆᆞᄆᆞ니셔드르라賤子ㅣ請ᄒᆞᆫᄃᆞ다베퍼닐오리라

甫昔少年日早充觀國賓 易에觀國之光이라ᄒᆞ니言甫ㅣ嘗策名薦書也ㅣ니

清江

라○내네저믄제일나랏비출보논소니거긔充數히요라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 破ᄂᆞᆫ識破其理也ㅣ라○그를닐고ᄃᆡ萬卷을ᄒᆡ루니부들ᄂᆞ리와ᄉᆞ매神助ᄒᆞ미잇ᄂᆞᆫᄃᆞᆺ더라

賦料揚雄敵詩看子建親 賦라ᄂᆞᆫ揚雄이아ᄀᆞᆯ오리로다혜오詩란子建이아親近ᄒᆞ리로다보다라

李邕求識面王翰願卜隣 李邕王翰은一時丈人ㅣ이니求識面ᄒᆞ며願ㅣ隣則甫之名重於時를可知로다○李邕이내ᄂᆞᆫ촐아라不라求ᄒᆞ고王翰이이우제와卜居ᄒᆞ야지라願ᄒᆞ더라

自謂頗挺出立登要路津致君

堯舜上再使風俗淳 要路津은仕宦에居要職者ㅣ라○내니ᄀᆞ디

조모ᄇᆡ혀나조ᄋᆞ로왼路津에올아셔님금을堯舜ㅅ우희닐위아곡다시風俗ᄋᆞ로ᄒᆡ

여淳厚케ᄒᆞ려타라 此意竟蕭條行謌非隱淪 隱淪ᄋᆞᆫ隱逸之

士也ㅣ라○이ᄠᅳ디ᄆᆞᄎᆞ매蕭條ᄒᆞ니ᄃᆡᄃᆞᆫ니셔놀애브로미隱淪도아니로다 騎

驢三十載旅食京華春 나귀ᄐᆞ고셜흔나ᄆᆞᆫᄒᆡ롤셔욼보ᄆᆡ와니

나그내로밥먹노라 朝扣富兒門暮隨肥馬塵殘盃與

冷炙到處潛悲辛 아ᄎᆞᄆᆡ가ᄋᆞ면짓門을가두드리고나조ᄒᆡ술진ᄆᆞᆯ

ᄐᆞᆫ드트를조차ᄃᆞᆫᄃᆡ셔먹다가기튼수욼잔과다ᄆᆞᆺ시근炙을간ᄃᆡ마다ᄀᆞᄆᆞ니슬다라

主上頃見徵欻然欲求伸 님그미뎌주ᅀᅮᆷᄢᅴ블료ᄆᆞᆯ뫼실셔믄

ᄂᆞ지베퍼나ᄅᆞᆯ求ᄒᆞ고져ᄒᆞ다라 青冥却垂翅蹭蹬無縱鱗

蹭蹬ᄋᆞᆫ失勢貌ㅣ라上句ᄂᆞᆫ鳥의垂翅ㅣ不得飛로比之ᄒᆞ고下句ᄂᆞᆫ魚의無縱壑之鱗ᄋᆞ로比之ᄒᆞ다○하ᄂᆞᆯ해ᄀᆞ도로ᄂᆞᆯ개ᄅᆞᆯ드리오고이그르처放縱ᄒᆞᆫ비ᄂᆞ리업수라 甚

愧丈人厚甚知丈人眞每於百寮上猥誦佳句新 丈人의돈거이ᄒᆞ요ᄆᆞᆯ甚히붓ᄭᅳ리며丈人의眞實로ᄉᆞ랑호ᄆᆞᆯ甚히아노니

每常百寮이ᄉᆞ희안지셔 내 됴ᄒᆞᆫ詩句의새로오ᄆᆞᆯ외오기놋다 竊效貢公

喜難甘原憲貧 王陽이與貢禹로爲友ᄒᆞ더니王陽이在位어늘貢禹ㅣ

彈冠ᄒᆞ니라原憲은孔子ㅅ弟子ㅣ라○貢公의ᄀᆞᆺ거호ᄆᆞᆯ그으ㅣ效則ᄒᆞ고져건마ᄅᆞᆫ

原憲의가난호ᄆᆞᆯ돌히너겨ᄆᆞᆯ어려워라爲能心快快秪是走踆

踆快快은志不滿也ㅣ오踆踆은行走皃ㅣ라○엇뎨能히ᄆᆞᅀᆞᄆᆞᆯ快快ᄒᆞ리오오직이ᄃᆞ로ᄆᆞᆯ踆踆ᄒᆞᆯᄃᆞ로다今欲東入海即將西去秦尚憐

終南山回首清渭濱下二句ᄂᆞᆫ言戀君不忍去之意ᄒᆞ다○이제東녀크로바ᄅᆞ래드러가곤將次ㅅ西ㅅ녀그로秦을ᄒᆡᆼᄋᆞ리왈고져컨마ᄂᆞᆫ오히려終南山ᄋᆞᆯᄉᆞ랑ᄒᆞ야ᄆᆞᆯᄀᆞᆫ渭水ㅅᄀᆞ의셔머리ᄅᆞᆯ횟돌아ᄇᆞ라노라常擬報一飯

况懷辭大臣大臣은指左丞ᄒᆞ니言一飯之恩을尚欲報之ᄂᆞ니况大臣相知ᄅᆞᆯ敢懷辭去乎ㅣ리오○長常ᄒᆞᆫ번밥머곤恩惠도갑고져너기거니ᄒᆞᄆᆞᆯ며大臣ᄇᆞ리

고가믈ᄉᆞ랑ᄒᆞ리아 白鷗波浩蕩萬里誰能馴 言若去則無繫

著也ㅣ리○흰ᄀᆞᆯ며기챤ᄒᆞᆫ므레괴여ᄃᆞᆫ니萬里예뉘能히질드리리오

上常左相二十韻 常見素ㅣ라

鳳曆軒轅紀龍飛四十春 軒轅時예鳳鳥至거ᄂᆞᆯ以名曆正之官ᄒᆞ니鳳曆으로借言唐曆ᄒᆞ니玄宗八即位至天寶十一載ᄒᆞ야四十年也ㅣ라○鳳曆은軒轅을紀錄ᄒᆞ엿ᄂᆞ니龍이ᄂᆞᆯ언디마온ᄒᆡᆺ보미니라

八荒開壽域一氣轉洪鈞 言左相이調和元氣ᄒᆞ사陶成萬物ᄒᆞ야使八方荒遠之民으로咸躋仁壽之域也ㅣ라○八荒애목숨ᄀᆞᄀᆞ이여ᄅᆞᆺ고ᄒᆞᆫ氣運은큰붑ᄀ을맛도다

霖雨思賢佐丹青憶老臣 高宗이 命傅說曰若歲大旱애用汝ᄒᆞ야 作霖雨ᄒᆞ리라 鹽鐵論에 曰公卿者ᄂᆞᆫ 神化之丹青이라ᄒᆞ다 ○霖雨ᄀᆞᄐᆞᆫ 이런 도오리ᄅᆞᆯ ᄉᆞ랑ᄒᆞ시고 丹青ᄒᆞᆯ 늘근 臣下ᄅᆞᆯ 思憶ᄒᆞ시니의 應圖求駿馬驚代得騏驎 梅福曰以伯樂之圖로求騏驎於市라ᄒᆞ니 此ᄂᆞᆫ 言像古賢而得見素也ㅣ라 ○ 노리에ᄂᆞᆫ 초외 駿馬ᄅᆞᆯ 求ᄒᆞ더시니 一代예셔 놀랄 騏驎을 어드시도다 沙汰江河濁調和鼎鼐新 上句ᄂᆞᆫ 言左相의 去貪污也ㅣ라 書에 若作和羹애 爾惟鹽梅라ᄒᆞ니 言左相의 燮理治化ᄒᆞ다 此下로至風俗還淳은 皆美左相ᄒᆞ다 ○江河ㅣ 흐리니ᄅᆞᆯ 치서ᄇᆞ리고 소ᄐᆡ 새로 왼거ᄉᆞᆯ 調和ᄒᆞ놋다 當賢

初相漢范叔已歸秦 常賢은 漢宣帝人丞相이라 魏人范睢의 字叔시니 入秦이어ᄂᆞᆯ 昭ᄒᆞ야 封應侯ᄒᆞ다 ○ 常賢이 처엄 漢을 돕ᄂᆞᆫ ᄃᆞᆺᄒᆞ고 范叔이 ᄒᆞ마 秦의 갓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盛業今如此傳經固絕倫 盛ᄒᆞᆫ 功業이 이제 이 ᄀᆞᄐᆞ니 經術은 傳ᄒᆞ요ᄆᆞᆫ 여ᄆᆞᆺ 무레 그 ᄡᅳ디로다

豫樟深出地滄海闊無津 上句ᄂᆞᆫ 言資質이 峻拔ᄒᆞ고 下句ᄂᆞᆫ 言度量이 宏深ᄒᆞ다 ○ 豫樟 남ᄀᆡ 기피 ᄯᅡ해셔 냇ᄂᆞᆫ ᄃᆞᆺᄒᆞ고 滄海 어위여 ᄀᆞ이 업슨 ᄃᆞᆺ도다

北斗司喉舌東方領搢紳 李固曰 陛下ㅣ 有尚書ㅣ 猶天에 有北斗ᄒᆞ니 北斗ㅣ 爲天喉舌이오 尚書ㅣ 爲陛下喉舌이라 ᄒᆞ니 此ᄂᆞᆫ 美左相之辭ㅣ다 ○ 北斗에 喉舌을 ᄀᆞ음알오 東

方애 搢紳을 ᄆᆡᄂᆞ렷도다 持衡留藻鑑 聽履上星辰 鄭崇이 哀帝時예 爲尚書ᄒᆞ야 數進見諫諍ᄒᆞᄃᆡ 每曳革履어든 上曰我ㅣ識鄭尚書의 履聲이라ᄒᆞ니 此ᄂᆞᆫ 言見素ㅣ 爲吏部侍郎ᄒᆞ야 銓選ᄒᆞ기 平允ᄒᆞ고 被上眷待也ㅣ라 ○ 저울 가져셔 몰ᄀᆞᆫ 鑑을 머믈우고 신소리로 ᄃᆞᆯ여 별서리예 올아가놋다 獨步才超古 餘波德照鄰 ᄒᆞ오아 건ᄂᆞᆫ ᄌᆡ죄 녯 사ᄅᆞ미게 超越ᄒᆞ니 나ᄆᆞᆫ 息波ㅅ 德이 이우졔 비취옛도다 聰明過管輅 尺牘倒陳遵 魏人管輅ㅣ 善天文地理ᄒᆞ야 無不精微ᄒᆞ니라 漢人陳遵이 贍於文辭ᄒᆞ야 善與人尺牘ᄒᆞ더라 尺牘은 書板이니 長一尺이라 ○ 聰明호ᄆᆞᆫ 管輅ㅣ게 넘고 尺牘ᄒᆞ요ᄆᆞᆫ 陳遵을 갓고로 ᄒᆞ리

로다 豈是池中物 由來席上珍 周瑜ㅣ曰蛟龍이得雲雨ᄒᆞ면終非池中物이니라禮記에儒有席上之珍이니라○엇데이못가온딧物이리오ᄂᆡ목브터오매돗우ᄒᆡᆺ珍寶ㅣ니라

廟堂知至理 風俗盡還淳 廟堂애셔至極히다ᄉᆞ료믈아노니風俗이다도로淳厚ᄒᆞ리로다

才傑俱登用 愚蒙但隱淪 此下ᄂᆞᆫ皆甫ㅣ自敍ㅣ다○才傑ᄒᆞᆫ사ᄅᆞᆷ다올아ᄡᅳ이거늘이런사ᄅᆞᆷᄋᆞᆫ오직수머ᄢᅢ뎃노라

長卿多病久 子夏索居頻 司馬相如의字ㅣ長卿이니有消渴病ᄒᆞ다禮記예子夏ㅣ曰吾ㅣ離群索居ㅣ久矣로라○長卿의힌病이오라고子夏의ᄒᆞ리사ᄅᆞᆷ미ᄌᆞ조라

回首驅流俗生

涯似衆人 似衆人은 甫ㅣ 言其貧賤이 與齊民으로 同也ㅣ라 ○ 流俗에 몰여ᄃᆞᆫ 믈어리도로혀보니 生涯ㅣ 뭀 사ᄅᆞ미 ᄀᆞᆮ도라 巫咸不可問鄒魯莫容身 列子에 有神巫曰季咸이 知人의 死生禍福이니라 鄒魯ᄂᆞᆫ 甫ㅣ 自比孔孟之不容於世也ㅣ라 ○ 巫咸ᄃᆡ 브러 可히 묻디 몯ᄒᆞ리로소니 鄒魯도 모몰 容納디 몯ᄒᆞᄂᆞ니라

感激時將晚蒼茫興有神 蒼茫은 曠遠貌ㅣ라 ○ 感激ᄒᆞ고져 ᄒᆞ니 時節이 將次人 느즈니 훤츨ᄒᆞᆫ 興곳 神奇로외오미 잇도다 爲公歌此曲滂淚在衣巾 그듸ᄅᆞᆯ 爲ᄒᆞ야 이 놀애ᄅᆞᆯ 브르노니 ᄂᆞᆫ므리 옷과 手巾에 잇도다

贈韋左丞丈濟

左轄頻虛位今年得舊儒唐制에左右丞이掌管轄省事ᄒᆞᄂᆞ
니라○左轄이ᄌᆞ조位뷔더니올ᄒᆡ아녯션ᄇᆡ를신도다相門韋氏在經
術漢臣須漢人韋賢과子玄成이皆以經術로爲相ᄒᆞ니라○宰相人家門에
韋氏잇ᄂᆞ니經術ᄒᆞᄂᆞᆫ漢ㅅ臣下를求ᄒᆞ야ᄡᅳ지노가時議歸前列天
倫恨莫俱前列은猶前輩ㅣ니謂時議에以韋濟로擬前輩也ㅣ라穀梁傳에兄
弟ᄂᆞᆫ天倫也ㅣ라ᄒᆞ니此ᄂᆞᆫ悼濟弟給事中逌之卒也ㅣ라○時節ㅅ議論ᄋᆞᆫ前列에보
내ᄂᆞ니하ᄂᆞᆳ次第를몯와잇디몯ᄒᆞᆫ몰ᄋᆞᆯ슬노다鴒原荒宿草鳳沼接

亭衢宿草ᄂᆞᆫ陳根也ㅣ니指逌之死ㅣ라中書ㅣ深邃ᄒᆞᆯ시晉人이比天ᄒᆞ고鳳凰池
ᄒᆞ니라○鶺鴒의두들세무ᄂᆞᆫ프리거츠러고鳳凰이모ᄉᆡᆫ흰ᄒᆞᆫ길히니엇도다有
客雖安命衰容豈壯夫客은甫ㅣ自謂라○잇ᄂᆞᆫ나그내비록天
命을安受ᄒᆞ나ᄂᆞᆯ근양ᄌᆞᄂᆞᆫ이나엇뎨壯ᄒᆞᆫ사ᄅᆞ미리오家人憂几杖甲
子混泥途几杖은老人의所憑持니ᄡᅳᄂᆞᆫ言家人이憂其老也ㅣ라甲子ᄂᆞᆫ猶
歲月이라○지빗사ᄅᆞ미几와막다히ᄒᆞ야주믈사시곰ᄒᆞᄂᆞ니甲子ㅣ애즌흙길헤섯긧노
라不謂矜餘力還來謁大巫陳琳曰小巫ㅣ見於大巫ㅣ라
ᄒᆞ다ᄡᅩᄂᆞᆫ甫ㅣ望左丞之矜憐ᄒᆞ야來謁也ㅣ라○나ᄆᆞᆫ히메어엿비녀기리라녀기다

아니ᄒᆞ면 도로와 곤 스승을 뵈리아 歲寒仍顧遇日暮且踟躕

謂嚴以松栢의歲寒不變之心으로春遇於甫ᄒᆞ시 甫亦老年에不忍去嚴也ㅣ라 踟躕

논 不進貌ㅣ라 ○ 歲寒엣 ᄆᆞᅀᆞᄆᆞ로 도라 보아 待遇ᄒᆞᆯ셔 힛나 조히 ᄯᅩ 머므노라 老

驥思千里飢鷹待一呼 魏武ㅣ云老驥伏櫪ᄒᆞ여셔 志在千里라

ᄒᆞ니 皆甫ㅣ自喩ㅣ라 ○ 늘근 驥馬ㅣ 千里 가고져 ᄉᆞ랑ᄒᆞ며 주린 매 ᄒᆞᆫ번 블러미 규믈

기드우ᄂᆞ니라 君能微感激亦足慰榛蕪 此ᄂᆞᆫ 甫ㅣ 有望於嚴

之薦援也ㅣ라 ○ 그듸 能히 자ᇝ간 感激ᄒᆞ면 ᄯᅩ 足히 榛蕪ᄒᆞᆫ ᄆᆞᅀᆞᄆᆞᆯ 慰勞ᄒᆞ리라

遣悶奉呈嚴公二十韻 嚴武ㅣ 鎭蜀이 이논 甫ㅣ 參幕

職ᄒᆞ니라

白水漁竿客清秋鶴髮翁 白水ᄂᆞᆫ蜀水名이라鶴髮은老人髮이
이如鶴也ㅣ니皆甫ㅣ自謂라○흰므레고기낛ᄂᆞᆫ대가진나그내여ᄆᆞᆯᄀᆞᆫᄀᆞᄋᆞᆯ히머리
鶴ᄀᆞᄐᆞᆫ한아비로라

胡為來幕下祇合在舟中 言老拙ᄒᆞ야宣
在漁舟ㅣ오不當為幕客也ㅣ라○엇뎨라幕下예왓거니오ᄇᆡᆺ가온ᄃᆡ이슈미아오직
맛도다

黃卷真如律青袍也自公 真如律은謂詩書ㅣ以禮
法으로縄人也ㅣ라○黃衣書巻이真實로法律ᄀᆞᆮ고프른오ᄉᆞᆫᄯᅩ구위예브트거시로
다

老妻憂坐痹幼女問頭風 痹ᄂᆞᆫ脚氣濕病이라○늘근겨

지븐안자절웨요ᄆᆞᆯ시름ᄒᆞ고 저 平地專欹
믄ᄯᅥ론머리옛風病을믄ᄂᆞ다
倒分曹失異同 病痺ᄒᆞ야셔欹倒ㅣ오老耋ᄒᆞ야셔分管曹事ᄅᆞᆯ不知異同也ㅣ
ㅣ라○平ᄒᆞᆫ ᄯᅡ해도젼혀기우러업드리고 ᄂᆞᆫ홋ᄂᆞᆫ ᄯᅡ욼이ᄅᆞᆯ다ᄅᆞ며ᄀᆞᆮ토ᄆᆞᆯ일ᄂᆞ라 禮
甘衰方就義忝上官通 上官은指嚴武ᄒᆞ니言武의待甫之禮ㅣ
寬容ᄒᆞ고甫의事武之義ᄂᆞᆫ得忝竊也ㅣ라○禮數엔ᄂᆞᆫ근히에나아가ᄆᆞᆯ ᄌᆞ히너기노라
ᄂᆡ義엔上官ᄋᆞᆯ通ᄒᆞ요ᄆᆞᆯ더러요라 疇昔論詩早光輝使鉞雄
上句ᄂᆞᆫ言甫ㅣ與武로早年에論詩也ㅣ다 使鉞은武ㅣ爲節度也ㅣ라○녜브터글議
論호ᄆᆞᆯ일ᄒᆞ니빗나ᄆᆞᆫ斧鉞가져슈미雄壯ᄒᆞ도다 寬容存性拙翦拂

念途窮言存留甫之性拙而翦拂其老醜也ㅣ라○ᄆᆞᄋᆞ미어위저性의疎拙ᄒᆞ

요ᄆᆞᆯ두시고ᄇᆡ려ᄇᆞ려길희窮困호ᄆᆞᆯᄉᆞ랑ᄒᆞ시놋다露裛思藤架煙

霏想桂叢此ᄂᆞᆫ甫ㅣ在幕ᄒᆞ야셔思草堂也ㅣ라○이슬저즌藤蘿ㅅ架子

ᄅᆞᆯᄉᆞ랑ᄒᆞ고ᄂᆡ세엿ᄂᆞᆫ桂樹ㅅ들구를스치노라信然龜觸網直作

烏窺籠此ᄂᆞᆫ在幕中ᄒᆞ야不得肆志호미如龜ㅣ在網이며烏ㅣ在籠也ㅣ라○

眞實로거부븨그므레걸리시며곧새籠애셔엿보ᄆᆞᆯ지엿노라西嶺紆村

北南江繞舍東此下八句ᄂᆞᆫ懷草堂之事也ㅣ라○西ㅅ녁뫼ᄒᆞᆫᄆᆞᅀᆞᆯ北

녀킈버므럿고南녁ᄀᆞᄅᆞᄆᆞᆫ집東녀킈돌엣ᄂᆞ니라竹皮寒舊翠椒實

兩新紅 녯거프른녯프른거시서놀고撤 末人여르믄비예새려블것도다 浪

鼓船應拆柸乾甕即空 믌겨리흔들티니비 당당이혀거리로다

酒盃ㅣ ᄆᆞᄅᆞ니 도기곧뷔도다 藩籬生野徑 斤斧任樵童 此 ᄂᆞᆫ

恐藩籬之破毁ᄒᆞ야樵童이斬伐園林也ㅣ 라○욼ᄉᆞ이예믿햇길히나니도최잔나모

지ᄂᆞᆫ아ᄒᆡ롤므 더니녀기노라 束縛酬知己 蹉跎效忠 知 己

ᄂᆞᆫ指武ᄒᆞ다言性雖疎放ᄒᆞ나束縛職事ᄒᆞ 야以酬其恩ᄒᆞ며年雖蹉跎ᄒᆞ나亦當效其

忠也ㅣ라○얽ᄆᆡ여셔몸아ᄂᆞᆫ恩惠롤 갑고蹉跎히셔조고맛忠ᄋᆞᆯ올바좁노라 周

防期稍稍 大簡遂忽忽 上句ᄂᆞᆫ信憂讒之態 니라○두루마곰젹

져ᄒᆞ요ᄆᆞᆯ 期約ᄒᆞ논 마ᄅᆞᆫ 저 簡略ᄒᆞ야 지즈로 뫼ᅀᆞ비 ᄃᆞᆫ니노라 曉入朱扉

啓 昏歸畫角終 曉入ᄋᆞᆫ 自居廣로 入幕府也ㅣ오 昏歸ᄂᆞᆫ 自幕府로 歸居廣也ㅣ라 ○새배ᄃᆞᆫ 지게 블근 門ᄋᆞᆯ 부체ᄅᆞᆯ 열오나 조히 도라갈젠 畫角소리 ᄆᆞᆺᄂᆞ다

不成尋別業 未敢息微躬 別業ᄋᆞᆫ 指草堂也ㅣ라 ○別業ᄋᆞᆯ ᄎᆞ자가ᄆᆞᆯ 일우디 몯ᄒᆞᆯᄉᆡ 구틔여 죠고맛 모ᄆᆞᆯ 쉬우디 몯ᄒᆞ노라 烏鵲愁銀漢

駑駘怕錦幪 烏鵲이 塡河成橋ᄒᆞ야 以渡牛女ᄒᆞᄂᆞ니라 言烏鵲이 在天ᄋᆞᆫ 非其所ㅣ오 駑駘ㅣ 被錦幪이 非其飾이니 以喻甫之衰老ㅣ 不合幕職也ㅣ라 ○가막가치 銀漢ᄋᆞᆯ 시름ᄒᆞ고 駑駘馬ㅣ 錦幪ᄋᆞᆯ 전ᄂᆞ니라 會希全物色 時放

倚梧桐 物色은謂形容也ㅣ라甫ㅣ冀武之故還草堂也ㅣ라○모로매物色을
오올와時로노하도머귀남글지엇고새보라노리

奉贈鮮于京兆二十韻 鮮于ᄂᆞᆫ姓이오名은仲通이라

王國稱多士賢良復幾人 幾人은言不多也ㅣ라○王國에人
士ㅣ하다일ᄏᆞᄅᆞ나賢良ᄋᆞᆫᄯᅩ몃사ᄅᆞᆷ고 異才應間出爽氣必殊
倫 間出은間世而出也ㅣ라爽氣ᄂᆞᆫ英爽之氣라○다ᄅᆞᆫ죄조ᄂᆞᆫ당당이ᄉᆞ이ᄒᆞ야나
ᄂᆞ니물ᄀᆞᆫ氣運은반ᄃᆞ기무리다ᄅᆞᄂᆞ니라 始見張京兆宜居漢
近臣 漢人張敞이爲京兆尹ᄒᆞ니言仲通이宜居敞之任也ㅣ라○비르서張京兆

ᄅᆞᆯ 보니 漢人 近臣에 사로미 맛당ᄒᆞ도다 驊騮開道路鵰鶚離風
塵 離ᄂᆞᆫ 去聲이라 此ᄂᆞᆫ 喩仲通의 得時飛騰也ㅣ라○됴ᄒᆞᆫ ᄆᆞ리 길ᄒᆞᆯ 여리가ᄂᆞᆫ ᄃᆞᆺᄒᆞ
며 매 ᄇᆞᄅᆞᆷ 드트를 버으리와다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侯伯知何算文章實
致身 言侯伯이 雖多ᄒᆞ나 仲通은 以文章之才로 致身也ㅣ라○이제 侯伯ᄋᆞᆯ 아노
라 어느 니ᄅᆞ혜리오마ᄅᆞᆫ 그듸ᄂᆞᆫ 文章ᄋᆞ로 眞實로 모몰 닐위도다 奮飛超等
綴容易失沉論 言仲通이 遷擢而超越官階ᄒᆞ니 去離沉論이 甚易而不
難進ㅣ라○니르와다ᄂᆞ라 等級을 긘내ᄒᆞᆫ니 수이 ᄲᅧ뎌 슈믈 일토다 脫略磻
溪釣操持郢匠斤 太公望이 釣於磻溪ᄒᆞ다 郢人이 堊漫其鼻端이어

ᄒᆞ使匠石으로斷之ᄒᆞᆫ대運斤이成風ᄒᆞ야盡堊而鼻不傷ᄒᆞ니言仲通之有斷ᄒᆞ다○磻溪예셔고기낫고ᄆᆞᆯ脫略ᄒᆞ고郢匠이ᄂᆞᆫ홀자ᄇᆞ도다

雲霄今已逼台袞更誰親

上句ᄂᆞᆫ言職近天子也ㅣ라三公ᄋᆞᆫ上應三台ᄒᆞ고袞服은三公의命服이라言仲通이必爲公相ᄒᆞ야得近天子也ㅣ라○구룸하ᄂᆞᆯ히이제ᄒᆞ마逼近ᄒᆞ니台袞앤ᄯᅩ뉘親ᄒᆞ리오

鳳穴雛皆好龍門客又新

李膺이世이簡亢ᄒᆞ니被客接者ᄅᆞᆯ謂之登龍門이라ᄒᆞ다上句ᄂᆞᆫ言仲通의子孫之賢ᄒᆞ고下句ᄂᆞᆫ言門客之賢ᄒᆞ다○鳳의굼긧삿기다됴고龍門엔조니ᄯᅩ새롭도다

義聲紛感激敗績自逡巡

甫ㅣ言仲通의義聲에雖紛然感激ᄒᆞ나我則敗績

而逶迤不進也ㅣ라○義聲에 感激ᄒᆞ던 가ᄒᆞᆫ나ᄒᆞᆫ 功績을 敗ᄒᆞ고 스싀로 미므러잇노라

途遠欲何向 天高難重陳ᄒᆞ니 途遠은 喻衰老ᄒᆞ니 下句ᄂᆞᆫ 言天門이 高遠ᄒᆞ야 難以詳究也ㅣ라○길히 머니 어드러 向ᄒᆞ야 가고져 ᄒᆞ리오 하ᄂᆞᆯ히 노ᄑᆞ니 다시 닐오기 어렵도다

學詩猶孺子 鄕賦念嘉賓 鄕賦ᄂᆞᆫ 鄕擧也ㅣ라○글 비호ᄆᆞᆫ 저믄 아ᄒᆡ ᄀᆞ토ᄃᆞ ᄀᆞ올ᄒᆡ셔 글지어 오ᄂᆞᆫ 아ᄅᆞᆷ다온 소ᄂᆞᆯ 로라ᄂᆡᄀᆡ 다라

不得同晁錯 吁嗟後郤詵 晁錯ㅣ 漢文帝時예 對策高第ᄒᆞ다 晉人郤詵이 對策ᄒᆞ야 爲天下第一ᄒᆞ니 甫ㅣ 擧進士不第故로 云ᄒᆞ다○시러곰 晁錯와 ᄀᆞᆮ디 몯ᄒᆞ노니 슬프다 郤詵의게 벼듀라

計疎疑翰墨時

過憶松筠 憶松筠은思隱於山林也ㅣ라〇혜아료미踈拙ᄒᆞ니글월ᄒᆞᄂᆞ다신가疑心ᄒᆞ고時節이디날서솔와대와ᄅᆞᆯᄉᆞ랑ᄒᆞᄂᆞ라 獻納紆皇眷中閒謁紫宸 謂甫ㅣ獻三大禮賦ᄒᆞ야待詔集賢院也ㅣ라〇글지어받ᄌᆞ와님금春顧ᄒᆞ샤매버므러ᄉᆞ이예紫宸殿에가뵈ᅀᆞ오라 且隨諸彦集方覲薄才伸 고저긔여러彦士ᄅᆞᆯ조차모다시오나온ᄌᆞ조ᄅᆞᆯ뵈야ᄒᆞ로엿보다라 破膽遭前政陰謀獨秉鈞 言甫ㅣ待詔ᄒᆞ야望高選ᄒᆞ다가爲李林甫의所沮ᄒᆞ니라〇애ᄅᆞᆯ허러알ᄑᆡᆺ政事ᄅᆞᆯ맛나니陰險ᄒᆞᆫ셰ᄅᆞᆯ사ᄅᆞ미ᄒᆞ올로鈞衡을자밧더라 微生霑忌刻萬事益酸辛 微生은甫ㅣ自

謂라○殘微ᄒᆞᆫ人生애아쳐러호
몰니부니萬事ㅣ더옥슬프도다 交合丹青
地愚傾雨露辰 丹青은見前詩ᄒᆞ니丹青地ᄂᆞᆫ指言公卿ᄒᆞ니라○사괴요
미丹青에모ᄃᆞ다파恩惠ᄂᆞᆫ雨露롤기우리시ᄂᆞᆫ쌔로다 有儒愁餓死
早晚報平津 公孫弘이封平津侯ᄒᆞ니甫ㅣ望仲通之薦引也ㅣ라○션비
주려주구믈시름ᄒᆞ노니언제아平津미알욀가

奉贈太常張卿垍二十韻

方丈三韓外崑崙萬國西 方丈山이在渤海中ᄒᆞ다三韓은辰
韓卞韓馬韓이라崑崙山은在西極ᄒᆞ니라
○方丈山은三韓入밧기오崑崙山은萬國

人西人ᄃᆡ괴엣ᄂᆞ니라 建標天地闊詰絕古今迷 建標ᄂᆞᆫ頃溪云猶立柱ㅣ니彷彿持節之意라○天地에원ᄃᆡ標ᄅᆞᆯ셰니나아가리그처네와이제ᄃᆡ뫼ᄒᆞᆯ迷失ᄒᆞᄂᆞ니라 氣得神仙迴息承雨露低 言坰ㅣ稟此山英靈之氣ᄒᆞ야以生而供奉翰林ᄒᆞ야承天子之恩也ㅣ라○氣運이神仙의아ᄋᆞ라호ᄆᆞᆯ得ᄒᆞ니恩惠ᄅᆞᆯ雨露ㅣᄂᆞᄌᆞᆨ호ᄆᆞᆯ받ᄌᆞᆸᄂᆞ다 相門淸議衆儒術大名齋 張坰ᄂᆞᆫ張說之子ㅣ니說이在中書而坰與兄垍으로皆掌絲綸之任ᄒᆞ니라○宰相의家門에ᄆᆞᆯᄀᆞᆫ議論이하니션비術業은큰일훔마ᄀᆞ죡ᄒᆞ도다 軒冕羅天闕琳琅識介珪 介珪ᄂᆞᆫ大珪ㅣ니比坰ᄒᆞ다○술위트고

見수 사ᄅᆞ미 하ᄂᆞᇗ 宮闕에 비릇 ᄀᆞ마ᄅᆞᆫ
구슬 서리예 ᄀᆞᆫ 珪를 아라 보니시라 伶官
詩必誦夔樂典猶稽 伶官은 樂官이라 書에 后夔ㅣ 典樂ᄒᆞ니 太常
卿은 掌樂故로 云ᄒᆞ다 ○ 伶官이 그 글 반ᄃᆞ
기 외오며 夔樂ㅅ 法을 오히려 마초 ᄧᅳᄂᆞ다
健筆凌鸚鵡 銛鋒瑩鸊鵜 禰衡이 作鸚鵡賦 호ᄃᆡ 筆不停輟ᄒᆞ
니라 鸊鵜ᄂᆞᆫ 水鳥ㅣ니 其膏ㅣ 瑩刀ᄒᆞᄂᆞ니
라 此ᄂᆞᆫ 美埴之作文이 健敏也ㅣ라 ○ 健壯
ᄒᆞᆫ 부드 鸚鵡賦를 凌犯ᄒᆞ고 ᄂᆞᆯ카ᄋᆞᆫ 갌
ᄂᆞᆯᄒᆞᆫ 鸊鵜 기르므로 빗나게 ᄒᆞ돗도다 友于
皆挺拔 公望各端倪 友于ᄂᆞᆫ 言兄弟也ㅣ라 埴埴兄弟ㅣ 負公輔之
望ᄒᆞ야 各有所歸也ㅣ라 ○ 兄弟ㅣ 다 ᄲᅡ혀
낫 ᄀᆞ마ᄅᆞᆫ 公輔 ᄃᆞ외욜 ᄇᆞ라ᄆᆞᆯ 제여곰

그티잇ᄂᆞ니라 通籍踰青瑣亨衢照紫泥 通籍은二尺竹牒에記年紀名字物色ᄒᆞ야懸宮門ᄒᆞ야案驗相應이어든得入ᄒᆞᄂᆞ니라紫泥ᄂᆞᆫ天子ㅅ信璽를皆以武都人紫泥로封ᄒᆞᄂᆞ니言垍의所行之逵애紫泥ㅣ光照也ㅣ라○籍을通ᄒᆞ야青瑣門에니마ᄃᆞᄂᆞ니ᄃᆞᆯᄒᆞᆫ길헨블근ᄒᆞᆯ기비취엿도다 靈虬傳夕箭歸馬散霜蹄 靈虬ᄂᆞᆫ言刻漏之體를以龍으로承之也ㅣ라箭은漏箭也ㅣ니言垍ㅣ當夕ᄒᆞ야騎馬還家也ㅣ라○靈ᄒᆞᆫ龍이나죗사ᄅᆞᆷ옮기거든도라오ᄂᆞᆫᄆᆞ리서리ᄇᆞᆲᄂᆞᆫ바ᄅᆞᆯ흗ᄂᆞ다 能事聞重譯嘉謨及遠黎 言垍의所能之事ㅣ聞播重譯蠻夷ᄒᆞ며其所謨猷ㅣ及遠方之民也ㅣ라○能ᄒᆞᆫ이리重譯ᄒᆞᄂᆞᆫ

셰해ᄃᆞᆯ이 누기에 룸디온 ᄢᅴ ᄂᆞᆫ 먼 百姓의게 미처 가矢다 弼諧方一展班
序更何蹐 書에 謨明弼諧ㅣ라 ᄒᆞ니 書塇之 班爵次序ㅣ已高也ㅣ라○弼諧
ᄒᆞ몰 뵈야ᄒᆞ로 ᄒᆞᆫ 번 펴ᄂᆞ니 班列次序엔 ᄯᅩ 어느 오ᄅᆞ리오 適越空顚躓
游梁竟慘悽 適越游梁은 皆甫ㅣ自叙ᄒᆞ다 ○越에 가도 ᄒᆞᆫ 것 업ᄂᆞᆫ 고 梁애
가노로매 ᄆᆞᄎᆞᆷ매 ᄉᆞᆯ프도다 謬知終畫虎微分是醯雞 馬援
曰畫虎不成이면 反類狗ㅣ니라 甫ㅣ言所知ㅣ謬誤而事終不成也ㅣ라 醯鷄ᄂᆞᆫ 醯甕
中ㅅ 蠛蠓이라 ○그ᄅᆞᆯ 아로ᄆᆞᄎᆞᆷ매 범그ᄅᆞᆷ ᄀᆞᄐᆞ니 微小ᄒᆞᆫ 性分ᄋᆞᆫ 이 奚호 ᄀᆞᆺ 벌어지
로다 萍泛無休日桃陰想舊蹊 萍泛은 甫ㅣ自喩流寓ᄒᆞ다 李

廣傳에 桃李不言이어든 下自成蹊ㅣ라 ᄒᆞ니 以桃蹊로 比埔之門下ᄒᆞ다 ○ 말왐ᄢᅥ든 ᄂᆡ ᄃᆞᆺᄒᆞ요미 말나리 업스니 복셩홧 ᄀᆞᄂᆞᆯ해 ᄢᅦ든 니던 길흘 ᄉᆞ치노라 吹噓人所

羨騰躍事仍睽 吹噓ᄂᆞᆫ 比埔之薦引人物ᄒᆞ다 事仍睽ᄂᆞᆫ 甫ㅣ 自嘆命途之睽乖ᄒᆞ니라 ○ 부리 보내요ᄆᆞᆯ 사ᄅᆞ미 브논 배 언마론 ᄂᆞ소사 ᄂᆞᆯ이리 지즈로 어그릇도다

碧海真難涉青雲不可梯 此ᄂᆞᆫ 喩騰躍之難ᄒᆞ다 ○ 프른 바ᄅᆞᄅᆞᆯ 真實로 건나미 어렵고 프른 구루메 可히 ᄃᆞ리 노티 몯ᄒᆞ리로다

顧深慙鍛鍊才小辱提携 鍛鍊은 刻苦成材之意라 上句ᄂᆞᆫ 言埔ㅣ 顧遇ㅣ 雖深ᄒᆞ나 甫ㅣ 慙鍛鍊之未至니라 下句ᄂᆞᆫ 甫ㅣ 才能이 未大ᄒᆞ니 徒辱埔之提携ㅣ니라

○도라보ᄆᆞᆯ 니피ᄒᆞ시니 鍛鍊호ᄆᆞᆯ 븟그리고져 죄저그니 잡드로ᄆᆡ 厚ᄃᆞ외도다

檻束哀猿呌 枝驚夜鵲棲 皆亦ㅣ自喻不得所也ㅣ라 ○軒檻엣 슬픈 나비 우ᄂᆞ니 로미얏고 나못 가지엔 바ᄆᆞᆺ 가지 깃기엣다가 놀라ᄂᆞ다

幾時陪羽獵 應指釣璜溪 太公望이 釣磻溪ᄒᆞ야 得玉璜ᄒᆞ고 遇文王ㅅ出獵ᄒᆞ야 載與同歸ᄒᆞ니 此ᄂᆞᆫ 甫ㅣ 自比太公ᄒᆞ야 望培之薦引也ㅣ라 ○언제 맛ᄢᅴ 羽獵을 뫼ᄒᆞᄋᆞ올고 당당이 구슬 낙ᄃᆞᆫ 시내흘 ᄀᆞᄅᆞ치리라

敬贈鄭諫議十韻

諫官非不達 詩義早知名 此下八句ᄂᆞᆫ 皆美諫議之能詩ᄒᆞ다

○諫爭ᄒᆞᄂᆞᆫ 벼스리라 通達티 아닛아ᄂᆞ로ᄡᅥ 니 詩義로 일일ᄒᆞᄆᆞᆯ 아ᄂᆞ다 破的

由來事先鋒孰敢爭 破的은 言詩句ㅣ 中理ᄒᆞ미 如射之破的也ㅣ라 先鋒은 言詩筆의 捷疾이 如戰之先鋒이니라 ○ 소ᄅᆞᆯ 혈에 조믄 녜로브터 오ᄂᆞᆫ 이리 니 몬져 가매 뉘 구틔여 ᄃᆞ토리오

思飄雲物外律中鬼神驚 ᄠᅳ든 구룸 밧긔 飄逸ᄒᆞ고 法律에 마ᄌᆞ니 鬼神이 놀라ᄂᆞ다

毫髮無遺恨

波瀾獨老成 上句ᄂᆞᆫ 言作詩예 無一字一句之遺恨也ㅣ오 下句ᄂᆞᆫ 言才思의 老成이 如波瀾之浩渺ㅣ니라 ○ 디력마도 기든 촉ᄒᆞ미 업스니 늙거리 ᄒᆞ올로 늘기이ᄅᆞᆺ도다

恨野人寧得所天意薄浮生 此下ᄂᆞᆫ 皆甫ㅣ 自敍ㅣ라

○비햇사ᄅᆞᄆᆞᆫ어느得所ᄒᆞ리오히 ᄂᆞᆺᄠᅳ디ᄇᆞᆫ人生ᄋᆞᆯ엷게ᄆᆡᆼᄀᆞ랏도다 多病休

儒服冥搜信客旌 言搜求冥幽之處ᄒᆞ되 其客旌의所向也ㅣ라 ○信

病이ᄒᆞ션ᄇᆡ오ᄉᆞᆯ받오ᄇᆞᆸ수윈ᄃᆡ더 드머보ᄆᆞᆯ란나그내旌旗ᄅᆞᆯ믿노라 藥居仙

縹緲旅食歲崢嶸 言卜藥幽居ㅣ知仙之縹 緲ㅣ언마ᄅᆞᆫ但旅食歲久

而未能歸也ㅣ라○사ᄅᆞᄆᆞᆯ더ᄅᆞᆯ卜藥ᄒᆞ미仙 人이ᄀᆞ오ᄅᆞᆫᄃᆞᆺ건마ᄅᆞᆫ나그내로밥머구메

ᄒᆡ오라 거다 使者求顏闔諸公厭禰衡 魯君이聞 顏闔의得

道ᄒᆞ고使人ᄒᆞ야以幣로先焉ᄒᆞ니라禰衡 이有才ᄒᆞ되慢物ᄒᆞᆯ시曹操劉表ㅣ다不容ᄒᆞ

니라○使者ㅣ아顏闔ᄋᆞᆯ얻니건마 ᄂᆞᆫ諸公ᄃᆞᆯᄒᆞ禰衡ᄋᆞᆯ아쳐라ᄒᆞᄂᆞ다 將期一

諾重欵使寸心傾 曹丘生이謂季布曰得黃金百斤이不如得季布의一諾이라ᄒᆞ니此ᄂᆞᆫ言甫ㅣ傾向於諫議也ㅣ라○將次人ᄒᆞᆫ번許諾ᄒᆞ요미므거우믈期望ᄒᆞ야믄듯寸心ᄋᆞ로ᄒᆡ여기우리노라 君見途窮哭宜憂阮步兵 阮籍이爲步兵校尉ᄒᆞ니車迹所窮이어든慟哭而返ᄒᆞ더니라甫ㅣ以阮籍으로自比其窮ᄒᆞ야望諫議之救ᄒᆞ다○그듸ᄂᆞᆫ窮困ᄒᆞᆫ길ᄒᆡ셔우루믈보라阮步兵을시름호미맛당ᄒᆞ니라

寄簡上 古詩十七首

寄韓諫議註

今我不樂思岳陽身欲奮飛病在床 韓註ㅣ爲諫議ᄒᆞ야直言이어놀代宗이貶岳陽ᄒᆞ신대註ㅣ遊洞庭君山ᄒᆞ야棄人事ᄒᆞ고爲長往之計어놀甫ㅣ思而作此詩ᄒᆞ니라○이제내즐기디아니ᄒᆞ야셔岳陽ᄋᆞᆯᄉᆞ랑ᄒᆞ노니모미ᄂᆞ라가고져ᄒᆞ나病ᄒᆞ야床애누어잇노라

美人娟娟隔秋水濯足洞庭望八荒 美人ᄋᆞᆫ指韓註ᄒᆞ니言其高傲ᄒᆞ야有物外之心也ㅣ라○고온사ᄅᆞ미ᄀᆞᅀᆞᆳ므레주ᅀᆞᆷ혯ᄂᆞ니洞庭므레발싯고八荒ᄋᆞᆯᄇᆞ라놋다

鴻飛冥冥日月白青楓葉赤天雨霜 揚子애鴻飛冥冥ᄒᆞ니弋人ᄋᆞᆫ何慕焉이리오喩韓註의高蹈物外ᄒᆞ다青楓ᄋᆞᆫ楚地所有也ㅣ라○그려기아ᅀᆞ

라 히 ᄂᆞᆯ오 히ᄃᆞ리 ᄇᆞᆯᄀᆞ니 프른 신나모
니피 ᄇᆞᆰ고 하ᄂᆞᆯ히 서리를 ᄂᆞ리오ᄂᆞ다 玉京

羣帝集北斗或騎麒麟翳鳳凰 玉京은 上帝所居ㅣ오 羣帝ᄂᆞᆫ 五方之帝라 此ᄂᆞᆫ 以羣帝朝北斗로 喻羣臣이 朝覲天子ᄒᆞ니라 ○玉京에 羣帝ㅣ 北斗에 모ᄃᆞ니 時或麒麟도 ᄐᆞ며 鳳凰도 ᄐᆞ놋다

芙蓉旌旗煙霧樂影動倒景搖瀟湘 註ㅣ在岳陽故로 言瀟湘ᄒᆞ다 ○蓮ㅅ 고ᄌᆞ로 밍ᄀᆞ론 旌旗오 雲霧서 ᄃᆡ옛 音樂이로소니 그르메 갓고로 비취ᄂᆞᆫ 힛비ᄎᆞᆯ 뮈워 瀟湘ᄋᆞᆯ 이어다矣

星宮之君醉瓊漿羽人稀少不在傍 羽人ᄋᆞᆫ 仙人이니 指韓註ᄒᆞ니 言貶黜ᄒᆞ야 不在星宮羣帝之傍也ㅣ라 ○星宮엣 님금은 瓊漿ᄋᆞᆯ

머거 醉킈 놀ᄋᆞᆯ 짓옷니 본 사ᄅᆞ미 ᄆᆞᄃᆞ 似聞昨者
므리 그ᄃᆡ의 잇디 아니ᄒᆞ도다

赤松子恐是漢代韓張良昔隨劉氏定長安

帷幄未改神慘傷 赤松子ᄂᆞᆫ 仙人이라 張良이 從高祖ᄒᆞ야 運籌帷幄
ᄒᆞ더니 後에 願棄人間事ᄒᆞ고 從赤松子遊
ㅣ라 ᄒᆞ니 又以二人으로 比韓詩ᄒᆞ다 ○ 녯
赤松子ㅣ라 듣논 ᄃᆞᆺᄒᆞ니 저ᄒᆞᆫ ᄃᆞᆫ이 漢代 옛
韓國人 張良인가 ᄒᆞ노라 녜 劉氏ᄅᆞᆯ 조차 長
安ᄋᆞᆯ 安定ᄒᆞ고 帷幄이 고티디 아
니ᄒᆞ얫거ᄂᆞᆯ 精神을 슬허ᄒᆞ니라 國家成敗

吾豈敢色難腥腐餐楓香 列仙傳에 壺公이 令費長房으로 啖
溷ᄒᆞ니 臭惡이 非常이어ᄂᆞᆯ 長房이 色難之
ᄒᆞ니라 ○ 나랏 일 머ᄒᆞ야 듀매 내 엇뎨 구틔

여ᄒᆞ리오ᄒᆞ고顏色이ᄇᆡ리며서근 周南留
거슬이려이너기고楓香올먹ᄂᆞ다

滯古所惜南極老人應壽昌 太史公이留滯周南ᄒᆞ니甫ㅣ自喩也ㅣ라老人星이見則主壽ᄒᆞᄂᆞ니比韓註의在南方ᄒᆞ다○周南애머므러슈믄녜ᄇᆞ터슬ᄂᆞᆫ배니南極엣老人星은壽昌호ᄆᆞᆯ相應ᄒᆞᄂᆞ니라

美人胡爲隔秋水焉得置之貢玉堂 美人은指韓註ᄒᆞ니言欲得此美人ᄒᆞ야貢之于堂ᄒᆞ야以輔天子也ㅣ라○아ᄅᆞᆷ다온사ᄅᆞᄆᆞᆫ엇뎨ᄀᆞᄋᆞᆳ므레주롬첫ᄂᆞ니오엇뎨시러곰두ᄃᆡ玉堂애바티려뇨

暮秋枉裴道州手札率爾遣興寄遞呈

蘇渙侍御

久客多枉友朋書素書一月凡一束數[illegible]이[illegible]ㅅ이 為書호ᄃᆡ 多書於緗ᄒᆞ니라 ○ 오래 나그내 ᄃᆞ외요메 벋븨 글워를 해 오게 ᄒᆞ니 ᄒᆞᆫ 글워리 ᄒᆞᆫ ᄃᆞ래 大凡 ᄒᆞᆫ ᄃᆡ ᄒᆞᆫ 무시로다

虛名但蒙寒暄問泛愛不救溝壑辱言朋友ㅣ 汎愛ᄒᆞ야 但問寒暄이오 不救窮困也ㅣ라 ○ 뷘 일훔에 오직 치위 더위 무루믈 니브니 너비 ᄉᆞ랑ᄒᆞᄂᆞᆫ 디라 굴헝에 잇ᄂᆞᆫ 辱ᄋᆞᆯ 救恤ᄒᆞ키 아니ᄒᆞᄂᆞ다

齒落未是無心人舌存恥作窮途哭張儀ㅣ 謂妻曰視吾舌ᄒᆞ라 尙在不아 妻曰在ᄒᆞ다 儀曰足矣라ᄒᆞ고 入秦ᄒᆞ야 說惠王ᄒᆞ야

爲客卿ᄒᆞ니라○니새다나이ᄆᆞᅀᆞᆷ업ᄉᆞᆫ사ᄅᆞ미아니로니헤이시니窮困ᄒᆞᆫ길헤셔우룸ᄒᆞ요ᄆᆞᆯ븟그리노라

道州手札適復至紙長要自三過讀札은木簡之薄小者ㅣ라○道州ㅅ소ᄂᆞ로ᄡᅳᆫ글워리마초아ᄯᅩ오니조히기리ᄉᆞᄉᆡ로세번다내닐구ᄅᆞᆯ조ᄋᆞ로이호라

盈把那須滄海珠入懷本倚崐山玉言得手札ᄒᆞ미如得海珠崐玉也ㅣ라○주메ᄀᆞᄃᆞᆨᄒᆞᆫ엇뎨모로메바ᄅᆞᆳ구슬ᄲᅡ니리오품메드니ᄅᆞᆯ本來崐山앳玉이론고ᄃᆞᆯ빗노라

撥棄潭州百斛酒蕪後瀟岸千株菊言得手札ᄒᆞ야懷思而讀之ᄒᆞ야不暇飮酒泛菊也ㅣ라○潭州옛온斛수를ᄲᅥ허ᄇᆞ료니瀟湘두들겟즈믄

拺人菊花ㅣ거츠럿도다 使我晝立煩兒孫令我夜坐費燈燭 言得手札而讀之ᄅᆞᆯ不輟晝夜ㅣ라○날로ᄒᆡ여나치셔셔兒孫ᄋᆞ로ᄒᆡ여즈리에侍ᄒᆞ게코닐ᄋᆞᆫ히여바ᄆᆡ자셔보ᄆᆞᆯ虛費케ᄒᆞᄂᆞ다

ᄂᆡ憶子初尉永嘉去紅顔白面花映肉 그ᄃᆡ처어ᄆᆡ永嘉애尉ᄃᆞ외야갈저긔ᄉᆞ랑ᄒᆞᄂᆡ紅顔애힌ᄂᆞ치고지ᄉᆞᆯ해비취엿더니라

軍符侯印取豈遲紫燕綠耳行甚速 軍符ᄂᆞᆫ節度符節이오侯印은諸侯印章이라紫燕綠耳ᄂᆞᆫ良馬名이니此道州人超逸之才ᄒᆞ다○將軍ㅅ符節와諸侯의印을어두미엇데더듸리오紫燕과綠耳왜녀가미甚히ᄲᆞᄅᆞᆫ듯도다

聖朝尚飛戰鬪塵

濟世宜引英俊人 聖朝애오히려사ᄋᆞ오면드리ᄂᆞᆫ니時世를거느
리ᄎᆔ면英俊ᄒᆞᆫ사ᄅᆞᆷ을혀ᄡᅡ미맛당ᄒᆞ니라 黎元愁痛會蘇息夷
狄跋扈徒逡巡 跋扈ᄂᆞᆫ強梁也ㅣ라言用英俊則民安而寇盜平也ㅣ리
○百姓의시름ᄒᆞ야설워ᄒᆞ미모로매蘇息ᄒᆞ리로소니夷狄의믈외요란ᄒᆞᆫ것머므러
도다 授鉞築壇聞意旨頽綱漏網期彌綸 高祖ㅣ築
壇ᄒᆞ고拜韓信爲大將ᄒᆞ니此ᄂᆞᆫ言將命道개將帥之事也ㅣ라彌ᄂᆞᆫ徧이오綸은理也
ㅣ라○節鉞을맛디어壇場ᄉᆞ실ᄇᆡ를듣ᄌᆞᆸ노니믈어딘綱紀와싀여디ᄂᆞᆫ그므를다다
ᄉᆞ료믈期望ᄒᆞ노라 郭欽上書見大計劉毅答詔驚群

至 晋人郭欽이上疏武帝ᄒᆞ야言夷狄의雜居中國之患ᄒᆞ다劉毅ㅣ對晋武帝曰桓靈은賣官錢入公府ᄒᆞ고陛下ᄂᆞᆫ賣官錢入私門ᄒᆞ시니殆不如桓靈이니리라ᄂᆞᆫ勉道州의如二入之轄道天子也ㅣ라○郭欽이上書ᄒᆞ야ᄀᆞᆫ혀야됴ᄆᆞᆯ나토고劉毅詔書를對答ᄒᆞ야羣臣을놀래이니라 他日更僕語不淺明公論兵氣益振 僕은太僕이니君이燕朝則正立ᄒᆞᄒᆞ야掌擯相ᄒᆞᄂᆞ니爲久將倦故로使人更代也ㅣ니言他日道州ㅣ入覲奏也ㅣ니라○다ᄅᆞᆫ나래ᄂᆞᆫ僕을서르ᄀᆞ라셔말ᄉᆞᆷᄉᆞᆷ호ᄆᆞᆯ엳게아니ᄒᆞ리니明公이兵事ᄅᆞᆯ議論ᄒᆞᄂᆞᆫ氣運이더옥니르왇ᄂᆞ다 傾壺簫管黑白髮儛劍霜雪吹青春 儛ㅣ與舞同ᄒᆞ다此ᄂᆞᆫ指

言道州ᄒᆞ다 ○ 酒盃ᄅᆞᆯ 기우리고 뎌 피리 부토매 센 머리 도로 검ᄂᆞ니 갈가지ᄀᆞ 춤추멘 서리와 눈괘 靑春에 봄이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宴筵曾語蘇李子後來傑出雲孫比 蘇李子ᄂᆞᆫ 蘇秦이니 言蘇渙이 爲李子의 雲孫也ㅣ라 ○ 이바디ᄒᆞ던 돗긔셔 蘇李子ᄅᆞᆯ 엳ᄌᆞᄫᆞ더니 後來예 雲孫等比 옛 사ᄅᆞᄆᆡ 傑出ᄒᆞ도다

茅齋定王城郭門藥物楚老漁商市 定王城이 在潭州ᄒᆞ니 渙의 所居ㅣ라 漁商市ᄂᆞᆫ 亦在潭州니 商의 所居ㅣ라 ○ 새 지븐 定王의 城郭ㅅ 門에 잇고 藥物은 楚ㅅ 늘근 사ᄅᆞᄆᆡ 고기 자바 ᄒᆞᆼ졍ᄒᆞᄂᆞᆫ 져제로다

市北肩輿每聯袂郭南抱甕亦隱几 漢陰丈人이 抱甕而灌圃ᄒᆞ니라 抱甕隱

几ᄂᆞᆫ甫ㅣ自謂ᄒᆞ다○저젯北녀킈서肩輿 타와每常ᄉᆞ메ᄆᆞᆯ니이없ᄂᆞ니城郭人南녀킈서도ᄀᆞᆯ아ᄂᆞ며 ᄯᅩ几를비기노라

無數將軍西第成 早作丞相東山起

馬融이爲大將軍西第頌ᄒᆞ니此ᄂᆞᆫ言諸將이平安史亂이어ᄂᆞᆯ賜第於京師也ㅣ라謝安이起於東山ᄒᆞ니亦言當時之相ᄒᆞ다○요ᄉᆞ이시將軍의西ㅅ녁지비일며일丞相이ᄃᆞ외야東山애셔니러나놋다

烏雀苦肥秋粟熟 蛟龍欲蟄寒沙水

此ᄂᆞᆫ喻小人이食祿而君子ㅣ退藏也ㅣ라○새ᄃᆞᆯᄒᆞᆫ甚히ᄀᆞᅀᆞᆳ조콰광의ᄉᆞᆯ지거늘蛟龍ᄋᆞᆫ치운몰앳므레蟄藏코져ᄒᆞ놋다

天下鼓角何時休 陣前部曲終日死

傷時干戈ㅣ未息也ㅣ라

○天下애鼓角소리ᄂᆞᆫ이ᄂᆞᆫᄯᅡ밀리어니오兵陣人알ᄑᆡ部曲은나라못ᄃᆞ록죽矣다

附書與裴因示蘇此生已愧須人扶ᄒᆞ야謂老病愧人의扶持也ㅣ라○글워ᄅᆞᆯ브터裴道州ᄅᆞᆯ주고져ᄌᆞ로蘇渙을뵈노니이生애ᄒᆞ마자ᄅᆞ미더위자보ᄆᆞᆯ기ᄅᆞᆯ우ᄋᆞᆯ븟그리노라致君堯舜付公等早據要路思捐軀ᄂᆞᆷ그믈堯舜에닐위우므란그ᄃᆡ네게브티노니몸조ᄋᆞ로원길헤브터서몸ᄇᆞᄅᆞᆯ이ᄅᆞᆯᄉᆞ랑ᄒᆞ리

蘇大侍御訪江浦賦八韻記異 幷序

蘇大侍御渙은靜者也ㅣ니旅于江側ᄒᆞ야

凡是不交州府之客ᄒᆞ야人事ᄅᆞᆯ都絶久

矣러니肩輿江浦ᄒᆞ야忽訪老夫ᄒᆞ니舁櫬而

已러라茶酒內에余ㅣ請誦近詩ᄒᆞ니肯吟

數首ᄒᆞ니才力이素壯ᄒᆞ고詞句ㅣ動人이러니

接對明日에憶其湧思ㅣ雷出ᄒᆞ니書篋

几杖之外에殷殷留金石聲ᄒᆞ시賦八韻

ᄒᆞ야記異ᄒᆞ고亦記老夫의傾倒於蘇ㅣ至

矣로라○蘇大侍御渙은安靜ᄒᆞᆫ사ᄅᆞ미니ᄆᆞᅀᆞᆶᄀᆞ애나그내ᄃᆞ외야大凡

ᄒᆞᆫ디이개府엣소놀사씌디아니ᄒᆞ야
사ᄅᆞᆫ미이ᄅᆞᆯ다그쳔디오라더니ᄆᆞᄅᆞᆹ
마ᄋᆡ有興타忽然히늘근사ᄅᆞ몰보각
오니및ᄃᆞᄅᆞ미리라차와수울와머구
ᄃᆡ내近階엣그ᄅᆞᆯ외오고라請ᄒᆞ니두
어마리ᄅᆞᆯ이프니才力이本來健壯ᄒᆞ
고談句ㅣ사ᄅᆞ믈感動ᄒᆞ더니對接ᄒᆞᆫ
이ᄐᆞᆺ나래소사나ᄂᆞᆫᄠᅳ디울에나 ᄃᆞᆺ
ᄒᆞ몰ᄉᆞ망ᄒᆞ니書簽과几杖밧긔우려
쇠와ᄃᆞᆰ소리미ᄆᆞ리이실서여論韻을
지어奇異ᄒᆞ몰記錄ᄒᆞ고늘근노비蘇
渙의게일ᄃᆞ로미至極ᄒᆞ몰ᄯᅩ記錄ᄒᆞ
노라

龐公不浪出蘇氏今有之 龐德公이居峴山ᄒᆞ야不應州府辟

命ᄒᆞ고 未嘗入城郭ᄒᆞ니라 ○ 龐公이 虛浪ᄒᆞᆫ
히 나ᄃᆞ니디 아니ᄒᆞ더니 蘇氏이 제 그러ᄒᆞᆫ
미 잇도다 再聞誦新作 突過黃初詩 黃初ᄂᆞᆫ 魏文帝人年號ㅣ
니 曺子建等人詩也ㅣ라 ○ 세 지은 글월 외오
거ᄂᆞᆯ 다시 드로니 黃初ㅅ 글워레 ᄃᆞ라 디나
도다 乾坤幾反覆 揚馬宜同時 幾反覆은 言文章이 代各不同
也ㅣ라 此ᄂᆞᆫ 言逸이 與揚雄司馬相如로 齊
名也ㅣ라 ○ 하ᄂᆞᆯ콰 ᄯᅡ쾃 ᄉᆞ이예 몃 버늘 두
위힐호거니오 揚雄과 司馬相
如와 同時호미 맛당ᄒᆞ도다 今晨清鏡中
勝食齋房芝 請鏡은 指江水ᄒᆞ다 漢人元封中에 芝生甘泉齋房ᄒᆞ니 此ᄂᆞᆫ
言閬逸詩ᄒᆞ니 意味深美ᄒᆞ야 過於食靈芝
也ㅣ라 ○ 오ᄂᆞᆳ 아ᄎᆞᆷ ᄆᆞᆯᄀᆞᆫ 거우룻 가온ᄃᆡ 셔

齋房앳芝草미구 미라와 낟도나 余鬢喜却變白間生黑絲 聞詩而喜ᄒᆞ니 白髮이 還黑也ㅣ다○내 미리터리 깃거 도로 희더니 힌 ᄉᆞ이예 거믄 시리 나늣다

昨夜舟天接湘娥簾外悲 湘娥는 娥皇女英이라○이젓 바미 비예 하ᄂᆞᆯ히 다하시나 湘水옛 겨지비 발 밧긔셔 슬터라

白靈來

敢散風破寒江遲 鬼神이 聞誦詩而來也ㅣ라○百靈이 구티여 ᄒᆞ려 가디 몯ᄒᆞ니 ᄇᆞᄅᆞ미 치운 ᄀᆞᄅᆞ몰 헤부ᄅᆞ믈 더듸ᄒᆞ놋다

寄裴施州

廊廟之具裴施州宿昔一逢無此流 廊廟앳 器具ㄴ

裴施州ㅣ여네ᄒᆞᆫ번맛
보니이런무리업도다金鐘大鏞在東序氷
壺玉衡懸清秋大鍾曰鏞이라上句ᄂᆞᆫ言和氣ᄒᆞ고下句ᄂᆞᆫ言襟懷清徹
ᄒᆞ다○金鍾과大鏞괘東序에잇고氷壺
와玉衡이ᄆᆞᆯ고ᄀᆞᅀᆞᆯ히ᄃᆞᆯ앳ᄂᆞᆫᄃᆞᆺ도다自
從相遇減多病三歲爲客寛邊愁서르맛나ᄆᆞᄅᆞ로브터
한病이더니세ᄒᆡᄅᆞᆯ나그내ᄃᆞ외여
슈에ᄀᆞ의왓ᄂᆞᆫ시르미훤ᄒᆞ도다堯有四
岳明至理漢二千石真分憂裴施州ᄒᆞ다○堯ㅅ저긔잇ᄂᆞᆫ
四岳이至極이다ᄉᆞ료ᄅᆞᆯᄇᆞᆯ기며漢人二千
石이真實로님금ㅅ시르믈ᄂᆞᆫ홧ᄂᆞᆫᄃᆞᆺ도다
幾度寄書白鹽北苦寒贈我青羔裘白鹽山은在夔

개ᄒᆞ니 甫ㅣ 在夔州ᄒᆞ니라 ○ 몃 디위ᄅᆞᆯ 白鹽山ㅅ 봐디킈 굴와ᄅᆞᆯ 브터 ᄂᆞ니오 심ᄒᆞᆫ치위예 나ᄅᆞᆯ 프르른 열의 갓오ᄉᆞᆯ 주ᄂᆞ다

霜雪迴光避錦袖蛟龍動篋蟠銀鉤 素靖의 草書ㅣ 狀如銀鉤ᄒᆞ니라 上句ᄂᆞᆫ 言裘之溫ᄒᆞ고 下句ᄂᆞᆫ 言寄書之妙ᄒᆞ다 ○ 서리와 눈괘 비츨 횟도로혀 錦ᄉᆞ매ᄅᆞᆯ 避ᄒᆞ고 蛟龍이 篋에서 뮈니 銀鉤ㅣ 서렛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紫衣使者辭復命再拜故人謝佳政 블근 옷 니븐 使者ㅣ 하딕ᄒᆞ고 命을 도로 가져가ᄂᆞ니 故人ᄋᆞᆯ 두 번 절ᄒᆞ야셔 아ᄅᆞᆷ다온 政治ᄅᆞᆯ 謝拜ᄒᆞᄂᆞ라

將老已失子孫憂後來況接才華盛 甫ㅣ 言我老而免憂子孫ᄋᆞᆫ 無他ㅣ라 子孫이 後來예 得接裴君才華之

盛也ㅣ시라○將次人ᄂᆞᆫ구메ᄒᆞ마子孫시름홀이를일후니後來에ᄒᆞ몰며才華ㅣ盛大호믈相接ᄒᆞ리로다

鄭典設自施州歸

吾憐滎陽秀 冒暑初有適 滎陽은鄭氏之郡也ㅣ라○나ᄂᆞᆫ滎陽애秀義호ᄃᆞᆯ돗노니더위를새처엄가미잇도다 名賢愼出處 不肯妄行役 일홈난어딘사ᄅᆞ미나며드러슈믈삼가간대로녀ᄃᆞ뇨ᄆᆞᆯ즐기디아니ᄒᆞᄂᆞ니라 旅茲殊俗遠 竟以屢空迫 南謁裴施州 氣合無險僻 言典設이客遠方ᄒᆞ야乏食而謁施州ᄒᆞ니竟氣相合ᄒᆞ야無

險陂偏僻也ㅣ라○이다ᄅᆞᆫ風俗이언ᄃᆡ나그내ᄃᆞ외야ᄆᆞᄎᆞ매ᄌᆞ조뮈유믜逼迫ᄒᆞᄆᆞ
로배南녀크로裴施州를뵈라가나氣運이마자險僻ᄒᆞ미업도다攀援懸根
木登頓入矢石李廣이見石如虎ᄒᆞ고射之沒矢ᄒᆞ니入矢石은謂石之
如虎이니與ᄂᆞᆫ言與設의所經道途險阻ᄒᆞ다○ᄆᆞᆯ휘ᄃᆞᆯ엿ᄂᆞᆫ남글더위잡ᄑᆞ살ᄃᆞᄂᆞᆫᄂᆞᆯ
해오ᄅᆞᄂᆞ려가도다青山有一川城郭洗憂戚言旅游之地ㅣ
險阻ㅣ旣盡ᄒᆞ니別是一平川也ㅣ라○ᄠᅳᄅᆞᆫ뫼헤ᄉᆞ싀ᄅᆞᆫᄒᆞᆫᄂᆡ힌ᄯᅡ히로소니城郭이
시르믈시서ᄇᆞ리도다聽子話此邦令我心悅懌그ᄃᆡ의이
ᄀᆞ올ᄒᆞᆯ니ᄅᆞ거늘드로니내ᄆᆞᄋᆞᄆᆞ로ᄒᆡ여즐겁게ᄒᆞᄂᆞ다其俗則純朴

不知有主客 겟風俗이純厚儉朴ᄒᆞ야主人과나그내이슈믈아디몯ᄒᆞᄂᆞ니라

溫溫諸侯門禮亦如古昔 言裴施州ㅣ爲人이溫恭ᄒᆞ야待客之禮ㅣ有古人之風也ㅣ라○溫溫ᄒᆞᆫ諸侯의門下ㅣ니禮도ᄯᅩ녯사ᄅᆞᆷᄀᆞ트니라

勑廚倍常羞杯盤頗狼籍 ᄇᆞ어븨飮食ᄆᆡᆼᄀᆞᆯ라홈도常녜와반애두ᄇᆡ리오盃盤도ᄌᆞ모사핫도다

時雖屬喪亂事貴賞匹敵 言裴鄭이氣類相求也ㅣ라○時節이비록브ᄋᆞ왜요매브터이시나이ᄅᆞᆯ벋마ᄌᆞᆫ사ᄅᆞ미賞玩호미貴ᄒᆞ니라

中宵愜良會裴鄭非遠戚 바ᄆᆡ됴ᄒᆞᆫ會集을ᄆᆞᅀᆞ매마초호니裴鄭이먼아ᅀᆞ미아니니다

羣書一萬卷博

淺供務隙 言施州ㅣ公務ㅣ閑暇ㅣ어든乃讀書也ㅣ니라○뭀 글월 一萬卷을 事務ᄒᆞᄂᆞᆫ ᄉᆞ이예 너비 涉獵ᄒᆞ놋다 他日辱銀鉤森疎見矛戟 歐陽詢의 行書ㅣ 森然如武庫矛戟이러라 甫ㅣ 嘗得施州書ᄒᆞ니 其字體之妙ㅣ 如銀鉤矛戟也ㅣ라○다ᄅᆞᆫ 나래 銀鉤ᄀᆞᄐᆞᆫ 그를 辱도이 보내니 森踈ᄒᆞᆫ 矛戟을 보ᄂᆞᆫ ᄃᆞᆺᄒᆞ라 倒屣喜旋歸畫地求所歷 謂甫ㅣ喜與談의 自施州로 還來也ㅣ라○신 갓고로 시너나 도라오ᄆᆞᆯ 깃거 보니 올 제 디나온 ᄃᆡᄅᆞᆯ ᄯᅡ해 그려 뵈ᄂᆞ다 乃聞風土質又重田疇闢 風土의 質朴호ᄆᆞᆯ 드르니 ᄯᅩ 다시 田疇ㅣ 여러 가랏도다 刺史似寇恂列郡宜競借 寇恂이 從光武ᄒᆞ야

즁顏끼이어늘百姓이遮道曰願從陛下ᄒᆞ
야復借寇君一年이라ᄒᆞ니以比施州也ㅣ
라○뉫刺史ㅣ寇恂ᄀᆞᆮᄒᆞ니비렷ᄂᆞᆫ北風吹
고ᄋᆞᆯ히ᄃᆞ뫼비로미맛당ᄒᆞ도다

瘴癘羸老思散策 甫ㅣ聞施州之風聲ᄒᆞ고 欲於秋風에扶策往謁也

ㅣ라○ᄯᅡ뒷ᄇᆞᄅᆞ미더운病을불이ᄂᆞᆫ시드
러운늘그메막대ᄅᆞᆯ흐리가고져ᄉᆞ랑ᄒᆞ노
라

渚拂蒹葭塞嶠穿蘿蔦冪 蔦ᄂᆞᆫ女蘿ㅣ라 甫ㅣ言往施州

時事ᄒᆞ다○믌ᄀᆞ이란ᄀᆞ리서놀ᄒᆞ니ᄀᆞᆯ披
拂ᄒᆞ고뫼해간蘿蔦ㅣᄊᆞᆺᄂᆞᆫᄃᆡᄅᆞᆯ들워가리
라

此身使兒僕高興潛有激 이보미아ᄒᆡ와 종파ᄅᆞᆯ依憑ᄒᆞ

간마ᄅᆞᆫ노ᄑᆞᆫ興心은ᄀᆞ
마니激發ᄒᆞ미이슈라

孟冬方首路强飯取

崖壁 首ᄂᆞᆫ 向也ㅣ라○孟冬에 ᄇᆡ야ᄒᆞ로 ᄀᆞᆯ ᄒᆞᆯ아아고 돌파 밥먹고 비러와 石壁서
리로 取ᄒᆞ야 가리라 數爾疲駑駘汗溝血不赤 相馬法에 許溝
ᄂᆞᆫ 欲深長이라 ᄒᆞ니 此ᄂᆞᆫ 言甫의 所乘이 非良馬也ㅣ라○너ᄆᆞ 곤 駑駘ᄅᆞᆯ ᄐᆞ노니 汗溝
에 피 븕디 아니ᄒᆞ도다 終然備外飾駕馭何所益 ᄆᆞᄎᆞᄆᆡ 밧
ᄀᆞᆯ ᄭᅮ뮤믈 ᄀᆞ촌ᄋᆞ아 시나 멍에 메어도 ᄆᆡᆫ ᄆᆞ슴 有益ᄒᆞᆫ ᄇᆡ 이시리오 我有平肩
輿前途猶準的 言無良馬故로 欲乘肩輿而往也ㅣ라 準的은 如射者의
見侯的也ㅣ니○내 平ᄒᆞᆫ 肩輿ᄅᆞᆯ 뒷노니 길 ᄎᆞ홀 소ᄂᆞᆫ 솔 봄 ᄀᆞᄐᆞ니라 翩翩入
鳥道廢脫蹉跌厄 鳥道ᄂᆞᆫ 言山이 高險ᄒᆞ야 人不得行이오 唯鳥ㅣ飛

過也ㅣ라 此ᄂᆞᆫ 言秉肩輿之安ᄒᆞ니라 ○ 너운 비은히 새 ᄃᆞᆫ니ᄂᆞᆫ 길ᄒᆞ로 ᄃᆞ려가 업드롤 厄올 기의 免호리라

寄薛三郎中璩

人生無賢愚飄飄若埃塵 人生애 어딘니 어리니 업시 飄飄히 ᄃᆞᆫ뇨미 ᄃᆞ틀 ᄀᆞᆮ도다
自非得神仙誰免危其身 스ᄉᆞ로 神仙의 이롤 엇디 몯ᄒᆞ면 뉘 그 몸 바ᄃᆞ 가오볼 免ᄒᆞ리오
與子俱白頭役役常苦辛 그ᄃᆡ와 다ᄆᆞᆺ 다 머리 셰니 役役ᄒᆞᄂᆞᆫ녀셔 長常 苦辛ᄒᆞ요리
雖為尚書郎不及村野人 甫ㅣ言今雖為工部員外郎이나 不及少日矣

平之時예村野人之樂也ㅣ라○비록尙書
郞이ᄃᆞ외야시나村野ᄡᅵ사ᄂᆞᆫ사ᄅᆞᄆᆞᆯ맛디
몯ᄒᆞ리로다憶昔村野人其樂難具陳녜村野애사던사ᄅᆞ
ᄆᆞᆯᄉᆞ랑ᄒᆞ니그즐거우믈다닐오미어렵도다藹藹桑麻交公侯爲
等倫藹藹ᄂᆞᆫ盛貌ㅣ라言野人이富於桑麻ᄒᆞ야可比公侯之貴니라○藹藹ᄒᆞᆫᄲᅩᆼ
과삼괘셧거옛거든公侯와ᄒᆞ야ᄀᆞᆲ더니라天未厭戎馬我輩本
常貧하ᄂᆞᆯ히사호맷ᄆᆞᄅᆞᆯ아쳗디아니ᄒᆞ나우리무른本來長常가난ᄒᆞ요라子
尙客荊州我亦滯江濱江濱은指夔州ᄒᆞ다○그ᄃᆡ오히려荊州
ㅣ와나그내ᄃᆞ외얏ᄂᆞ니나도ᄯᅩᄀᆞᄅᆞᇝᄀᆞᇫ의머며무릿노라峽中一臥病

瘧癘終冬春 峽中에ᄒᆞᆫ번病ᄒᆞ야누우니고곰病으로거올와보믈모ᄅᆞ라
春復加肺氣此病蓋有因早歲與蘇鄭痛飲
情相親 蘇源明鄭虔이라○보ᄆᆡᆫᄯᅩ肺氣ㅅ病이더으니이病은젼ᄎᆡ잇ᄂᆞ니라 저므제蘇鄭으로다ᄆᆞᆺᄒᆞ야ᄀᆞ장술머거서ᄠᅳ들서르親ᄒᆞ요라 二公化為
土嗜酒不失真 두사ᄅᆞᄆᆞᆫ變化ᄒᆞ야ᄒᆞᆰ기ᄃᆞ외니술즐규믈眞性을일티아니ᄒᆞ니라 予今委脩短豈得恨命屯 나ᄂᆞᆫ이제목숨길며뎔우믈모ᄃᆞᆫ히너겨ᄇᆞ리노니엇뎨시러곰命의屯蹇호믈슬흐리오 聞子心
甚壯所過信席珍 子ᄂᆞᆫ指薛璩ᄒᆞ다○그듸ᄂᆞᆫᄆᆞᄋᆞ미甚히健壯ᄒᆞ믈

든노니더니가논바애眞寶로ᄆᆞᆺ긔안잣ᄂᆞᆫ珍寶ㅣ로다 上馬不用扶每

扶必怒嗔 此下十句ᄂᆞᆫ皆言瓌ᄒᆞ다○ᄆᆞᄅᆞᆯ토ᄃᆡ사ᄅᆞ미扶持호ᄆᆞᆯᄡᅳ디아니

고每常扶持ᄒᆞ거든ᄇᆞᆫᄃᆞ기므여ᄒᆞᄂᆞᆺ다 賦詩賓客間揮灑動八

垠 八垠은猶八方이라○賓客ᄉᆞ이예셔그를지으니글ᄉᆞᆫ거시八垠에뮈옛도다

乃知蓋代手才力老益神 一代ᄅᆞᆯ두펏ᄂᆞᆫ소ᄂᆞᆫ才力이늘거아

ᄃᆡ옥神奇ᄅᆞ외요ᄆᆞᆯ알와라 青草洞庭湖東浮滄海漘 青草

ᄂᆞᆫ湖名이라○青草와洞庭人해에東녀크로ᄇᆞᄅᆞᆳᄀᆞᆺᄋᆞ로빗ᄢᅧ위기ᄂᆞᆺ다 君山

可避暑況足采白蘋○ 君山이在洞庭湖心ᄒᆞ다君ᄂᆡ앤어루더위ㅣ

롤避ᄒᆞᆫ새히니ᄒᆞᆫ볼내못이ᄒᆞᆫᄃᆞᆯ옴올킈아니ᄒᆞ리로니行豈無扁舟往

復江漢津言薛璩ㅣ求開道賓也ㅣ라○그ᄃᆡᄂᆞᆫ엇뎨자근ᄇᆡ江과漢ㅅᄂᆞᆯ이

오락가락ᄒᆞᆯ가시업스리오我未下瞿塘空念禹功勤甫ㅣ

留滯峽中ᄒᆞ야未得乘舟而下ᄒᆞ야徒思禹이疏鑿之勤也ㅣ라○나ᄂᆞᆫ瞿塘ᄋᆞ로ᄂᆞ려

가디몯ᄒᆞ니ᄒᆞᆫ갓禹ㅅ功이브즈런호ᄆᆞᆯᄉᆞ랑ᄒᆞ노라聽說松門峽吐

藥攬衣巾聞松門之好ᄒᆞ고不暇飮藥ᄒᆞ야即欲往觀也ㅣ라○松門峽이를

니ᄅᆞ거ᄂᆞᆯ듣고藥먹다가ᄇᆡ왇고衣巾을자바니러셔라高秋却束帶鼓

枻視清旻秋天이曰旻天이라言秋當往也ㅣ라○노ᄑᆞᆫᄀᆞᅀᆞᆯ히도로ᄯᅴ롤ᄠᅧ

옥비ᄌᆞᆯ두드려가몰몰곤ᄀᆞ없하놀홀보리라 鳳池日澄碧濟濟多

士新 〇謂朝廷이淸平而賢士ㅣ見用也ㅣ라鳳凰人모시나날몰가펴려ᄒᆞ니濟

濟ᄒᆞᆫ士ㅣ새롭도다 余病不能起健者勿逡巡 健者는指

裵古ᄒᆞ〇나ᄂᆞᆫ病ᄒᆞ야能히니디몯ᄒᆞ노니健壯ᄒᆞᆫ너는머므디말라 上有明

哲君下有行化臣 言遷ㅣ歸朝則當見用也ㅣ니라〇우흰明哲ᄒᆞ신

님금ㅣ겨시고아래敎化行ᄒᆞᄂᆞᆫ臣下ㅣ잇ᄂᆞ니라

奉贈射洪李四丈

丈人屋上烏人好烏亦好 丈人은猶李四也ㅣ라周公曰愛其

人者ㅣ愛其屋上之烏ㅣ니라○丈人의집우흿가마괴이ᄉᆞ랑미됴홀셔가마괴도ᄯᅩ됴토다

人生意氣豁不在相逢早言朋友相合이不必在早ㅣ니라○人生에ᄠᅳᆮ과氣運이훤츨ᄒᆞ요ᄆᆞᆫ서르맛보몰일호매잇디아니ᄒᆞ니라

南京亂初定所向邑枯槁南京은城都府ㅣ라亂初定은陵子璋之亂이라○南京에이즈러우미치엄安定ᄒᆞ니向ᄒᆞ야가논ᄃᆡ顏色이이우렷도다

遊子無根株茅齋付秋草遊子ᄂᆞᆫ甫ㅣ라○노내ᄂᆞᆫ子ㅣ불휘업소니새지블ᄀᆞᅀᆞᆳ프이리예브텨둣노라

東征下月峽掛席窮海島謂甫ㅣ將適吳楚也ㅣ라○東녀크로녀月峽으로ᄂᆞ려가노니빗돗ᄃᆞ라바ᄅᆞᆳ셤

잇ᄂᆞᆫ디 다가리라 萬里須十金妻孥未相保 萬里 ᄀᆞᆯ가매 十金을 기들우ᄂᆞ니 겨집과 子息을 서르 安保ᄒᆞ디 몯ᄒᆞ리로다 蒼茫風塵際 蹭蹬騏驎老志士懷感傷心胷已傾倒 蹭蹬은 失勢貌ㅣ라 志士ᄂᆞᆫ 指李四ᄒᆞ니 李四ㅣ 惆南之奔走風塵ᄒᆞ야 傾倒心胷ᄒᆞ야 以待之世ㅣ라 ○ ᄇᆞᄅᆞᆷ과 드틄 ᄀᆞ의 뵈왓비 ᄃᆞᆫ뇨니 이 그르치 騏驎馬ㅣ 늘긋도다 志士ㅣ 슬호ᄆᆞᆯ 머거셔 ᄆᆞᅀᆞᄆᆞᆯ ᄒᆞ마 기우리ᄂᆞ다

奉酬薛十二丈判官見贈

忽忽峽中睡悲風方一醒 忽忽ᄋᆞᆫ 多睡貌ㅣ라 ○ 忽忽히 峽中

에서ᄌᆞ오다가슬픈ᄇᆞᄅᆞ매뵈야ᄒᆞ로ᄒᆞᆫ번세요라 西來有好鳥爲我
下青冥 西ㅅ녀크로셔오ᄂᆞᆫ됴ᄒᆞᆫ새잇ᄂᆞ니 나ᄅᆞᆯ爲ᄒᆞ야하ᄂᆞᆯ로셔ᄂᆞ려오ᄂᆞ니
羽毛淨白雪慘澹飛雲汀 터러기ᄒᆡᆫ누니라 와조ᄒᆞ니슬피구
룸ᄂᆞᆫ믌ᄀᆞᅀᆡ 와ᄂᆞ니놋다 既蒙主人顧擧翮嘆孤亭 이믜 셔主
人의도라보ᄆᆞᆯ니버실셔ᄂᆞᆯ개 ᄅᆞᆯ드러외ᄅᆞ왼亭子에우놋다 持以比佳士
及此慰揚舲 揚舲은謂行船也ㅣ라○가져 다기ᄢᅵ佳士의게가줄비노니
예미처와녀가ᄂᆞᆫ ᄇᆡᄅᆞᆯ慰勞ᄒᆞ노라 清文動哀玉見道發新硎
辭之清文이如玉音이오見道ㅣ斂捷也ㅣ 라○ᄆᆞᆯᄀᆞᆫ글워ᄅᆞᆫ슬픈玉소리뮈ᄂᆞᆫᄃᆞᆺᄒᆞ고

道理보믄갈홀새러然 믈허ᄀᆞ라내욘ᄃᆞ도다 欲學鴟夷子待勤燕山銘 范蠡ㅣ泛五湖ᄒᆞ야號鴟夷子ᄒᆞ다漢人寶憲이擊匈奴ᄒᆞ야大破之ᄒᆞ고登燕然山ᄒᆞ야刻銘勒功ᄒᆞ니此ᄂᆞᆫ勉薛의成功而後에아可退休也ㅣ니라○鴟夷子의이로비호고저ᄒᆞᆯ련燕山ㅅ銘을사교믈기들올디니라 誰重斬郅劍致君君未聽 漢人甘延壽ㅣ斬郅支單于ᄒᆞ니喻薛文이雖有才而世未識ᄒᆞ야君不聽用也ㅣ라○뉘郅支버히ᄃᆞᆫ갈홀重히너기리오님그믈빌위오져ᄒᆞ나님그미듣디아니ᄒᆞ시놋다 志在麒麟閣無心雲母屛 鄭弘이為太尉ㅣ오第五倫이為司空이어늘每朝見에弘이曲躬自卑ᄒᆞᆫ대上이為置雲母屛ᄒᆞ야分

隔其間ᄒᆞ니此ᄂᆞᆫ言薛丈이當志在立功畫像이오勿望上之寵眷也ㅣ니라○ᄠᅳ디麒麟閣애잇고雲母屛風에ᄆᆞᄋᆞᆷᄒᆞ디마롤디니라

卓氏近新寡豪家朱門扃相如才調逸銀漢會雙星 蜀人富人女卓文君이新寡ㅣ이놀相如ㅣ以琴挑之ᄒᆞᆫ대文君이夜奔ᄒᆞ니라雙星ᄋᆞᆫ指牽牛織女ᄒᆞ니此ᄂᆞᆫ言薛之有新婚ᄒᆞ니라○卓氏요조옴새려ᄒᆞ올어미ᄃᆞ외니豪華ᄒᆞᆫ지벅블근門을다닷더니相如외지죄俊逸ᄒᆞ야銀漢애두벼리몯ᄃᆞᆺᄒᆞ도다

客來洗粉黛日暮拾流螢不是無膏火勸郞勤六經 車胤이聚螢ᄒᆞ야讀書ᄒᆞ니라○新婦ㅣ不事容飾ᄒᆞ고勸薛以好學也라○소니오거든粉과黛

롤싯고힛나조히홀러든나ᄂᆞᆫ반되롤즛놋다이기름브리업슨줄아니라郎君의六經

브즈러니닐구믈勸ᄒᆞ놋다 老夫自汲澗野水日泠泠 老夫

ᄂᆞᆫ甫ㅣ自謂라○늘근노ᄆᆞᆫ내시냇므를기로니미햇므리나날몰갓도다 我歎

黑頭白君者銀印青 漢制예二千石以上은皆銀印青綬ㅣ니라○

나ᄂᆞᆫ거믄머리셰요믈슬커늘그듸ᄂᆞᆫ銀印의퍼러호믈보놋다 病卧識山

鬼爲農知地形 此ᄂᆞᆫ甫ㅣ自述也ㅣ라○病ᄒᆞ야누어셔뫼햇귓거슬알

오녀름지이ᄒᆞ요매ᄯᅡ히얼구를아노라 誰矜坐錦帳苦厭食魚

腥 漢制예郎官올給錦帳ᄒᆞᄂᆞ니라甫ㅣ言誰憐我의曾爲郎而坐錦帳이리오今但

厭食楚魚之腥ᄒᆞ노라○뉘錦帳에안뎐이
롤어엿비너기리오甚히고기의비류믈먹디아철노라
東南兩岸坼橫水注滄溟碧色忽惆
帳風雷搜百靈此ᄂᆞᆫ言峽注之險ᄒᆞ다○東과南녁두두들기ᄠᅥ러디니빗
근므리바ᄅᆞᆯ로브이가ᄂᆞᆺ다ᄑᆞ른비치忽然히슬프니ᄇᆞᄅᆞᆷ과울에왜百靈을더듬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
空中右白虎赤節引娉婷自云帝里女
噀雨鳳凰翎娉은匹巡反ᄒᆞ고婷은徒寧反ᄒᆞ니好貌ㅣ라此ᄂᆞᆫ言神女ㅣ
騎鳳凰ᄒᆞ야行雲雨也ㅣ라○空中에右ㅅ녁白虎ㅣ블근符節로고온겨지블혀가ᄂᆞᆺ
다제닐오ᄃᆡ帝里엣겨지비로니鳳凰이ᄂᆞᆯ개예서비ᄅᆞᆯᄲᅮᆷ노라
襄王薄行

跡莫學冷如丁千秋一拭淚夢覺有微馨楚人襄王이夢見婦人ᄒᆞ니自云我ᄂᆞᆫ帝之季女ㅣ로니未嫁而死ᄒᆞ니聞王의遊高唐ᄒᆞ고願薦枕席ᄒᆞ노라有鶴이止遼東華表柱曰有鳥有鳥丁令威니去家千年에今始歸ᄒᆞ라此ᄂᆞᆫ이두이ᄅᆞᆯ나ᄆᆞ라서言葬與新婚之好ᄒᆞ다○襄王은ᄃᆞ니던자최열우니사날호미ᄀᆞ로ᄅᆞᆯ배호ᄆᆡ마롤디니라千秋에ᄒᆞᆫ번눈므를슷고ᄭᆞ믈ᄭᆡ니잢간곳다온내이셔니라

人生相感動金石兩靑熒夫婦之情이堅如金石也ㅣ리○人生애셔로感動ᄒᆞ니쇠와돌쾌두거시빗난ᄃᆞᆺᄒᆞ도다

丈人但安坐休辨渭與涇丈人은오직便安히안자서渭와다ᄆᆞᆺ涇水ᄅᆞᆯᄀᆞᆯᄒᆡ디말

라
龍蛇尚格鬪洒血暗郊坰 此ᄂᆞᆫ言當時예戰爭이未息也
ㅣ라○龍과ᄇᆡ얌괘오히려사호ᄂᆞ니피ᄡᅳ려ᄆᆡ히어드윗도다 吾聞聰明
主治國用輕刑 用輕刑은言尚德也ㅣ라○나ᄂᆞᆫ드로니聰明ᄒᆞ신님그
미나라ᄒᆞᆯ다ᄉᆞ리샤ᄃᆡ가ᄇᆡ야온刑罰을ᄡᅳ시놋다 銷兵鑄農器今
歲方寧 言銷兵戈ᄒᆞ야務農功ᄒᆞ면方得安寧也ㅣ니라○兵戈ᄅᆞᆯ노겨農器ᄅᆞᆯ
디면뎨와이제ᄒᆡ비야ᄒᆞ로편안ᄒᆞ리라 文王日儉德後乂始盈
庭 文王이日勤儉德ᄒᆞ시니後乂之士ㅣ衆多ᄒᆞ니라○文王이나날節儉ᄒᆞᆫ德을ᄒᆞ
시니後乂ㅣ비르서ᄠᅳᆯ헤ᄀᆞ독ᄒᆞ얏도다 榮華貴少壯豈食楚江

萍楚人昭王이 渡江ᄒᆞ다가 得一物이 如斗ᄒᆞ야ᄂᆞᆯ 孔子曰萍實이니 可剖而食之니라 此ᄂᆞᆫ 勉薛之立功業也ㅣ라 ○ 榮華ᄂᆞᆫ 져믄 저기 貴ᄒᆞ니 엇뎨 楚江앳 말와 믈 먹고 이시리오

贈華陽柳少府

繫馬喬木間 問人野寺門 柳少府ㅣ 寓居野寺ㅣ어ᄂᆞᆯ 甫ㅣ 尋訪ᄒᆞ니라 ○ 노ᄑᆞᆫ 나못 ᄉᆞ이예 ᄆᆞᆯ 리오 ᄆᆡ햇 뎘 門에 사ᄅᆞᆷᄃᆞ려 무르라 柳侯披衣笑見我顏色溫 柳侯ㅣ 옷 가ᄉᆞᆯ 헤혀고 셔우이셔 나ᄅᆞᆯ 보니 ᄂᆞᆺ비치 溫和ᄒᆞ도다 並坐石堂下 俛視大江奔 石堂ㅅ 아래 골와 안자 큰

ᄀᆞᄅᆞᆷ므리ᄃᆞ로믈구버보라 火雲洗月露絶壁上朝暾블ᄀᆞ
ᄐᆞᆫ구루미ᄃᆞᆯ와이스레싯기ᄂᆞ니ᄂᆞ푼石壁엔아ᄎᆞᆷ힛비치도다오ᄅᆞᆫ낫다 自非曉
相訪觸熱生病根스싀로새배서르보다아니ᄒᆞ면더위ᄃᆞᆯ마ᄃᆞᆯ어病
의불휘나리로다 南方六七月出入異中原言中國은地寒
ᄒᆞ고南方은甚熱也ㅣ라○南方入六七月에드나ᄃᆞ로미中原과다ᄅᆞ도다 老少
多暍死汗踰水漿飜늘그니와져므니왜해더윗病ᄒᆞ야죽고ᄯᆞ믄
믈와漿水왜두위듀미라와넘도다 俊才得之子ᄂᆞᆫ勛力不辭煩
喜得汝府의俊才ᄒᆞ야不辭勛力의煩勞而來詩也ㅣ라○俊逸ᄒᆞᆫ지조ᄅᆞᆯ이子ᄅᆞᆯ니두

나히의어즈러우믈마디아니ᄒᆞ야와보노라 指揮當世事語及戎

馬存涕淚濺我裳悲氣排帝閽 帝閽은天門也ㅣ라言必

府ㅣ負經世之志ᄒᆞ야言及戎兵의未息ᄒᆞ야悲傷泣涕ᄒᆞ니其意氣ㅣ上排天子之門ᄒᆞ

也ㅣ라○當世옛이ᄅᆞᆯᄀᆞᄅᆞ치고말ᄉᆞ미자홈자ᄒᆞ논ᄆᆞᆯ이슈메밋놋다눉므를내오새

븨리ᄂᆞ니슬픈氣運이님굼門으로미러가놋다 鬱陶抱長策義徒

知者論 言必府의爲國鬱結之志ᄅᆞᆯ與知己者로論也ㅣ라○슬허긴謀策을아

ᄭᅩᆺᄂᆞ니義ᄂᆞᆫ알사ᄅᆞᆷᄆᆞᆯ브터議論ᄒᆞ놋다 吾衰臥江漢但愧識璵

璠 璵璠은美玉이니比必府ᄒᆞ니甫ㅣ愧知王必府之賢ᄒᆞ되不能薦引也ㅣ라○내ᄂᆞᆫ

거江漢애누어슈니오직구 文章一小技於
스ᄅᆞᆯ알ᄲᅮᆫ호ᄆᆞᆯ붓그리노라
道未爲尊 甫ㅣ自謙以府의尊已也ㅣ라○文章은ᄒᆞᆫ죠고맛치죄리道理예
尊ᄒᆞ디아니ᄒᆞ니라 起子幸斑白因是託子孫 甫ㅣ言以府ㅣ
起發予의志意於衰老之間ᄒᆞ니因此覩見ᄒᆞ야付託子孫也ㅣ라○내ᄆᆞᄋᆞᆷ니ᄅᆞ와도
몰어르누기빈時節에幸히니기노내이ᄅᆞᆯ因ᄒᆞ야子孫ᄋᆞᆯ보티노라 俱客古
信州結廬依毁垣 ○古信州는指夔州也ㅣ라 녯信州예다나그내ᄃᆞ
ᄋᆡ야집지오ᄃᆡ믈어딘다ᄆᆞᆯ브토라 相去四五里徑微山葉繁
서르버으루미너덧里ᄅᆞᆯᄒᆞ니길히ᄀᆞᄂᆞᆯ오뫼햇나못니피하도다 時危挹佳

호況兒軍旅喧 佳士ᄂᆞᆫ指少府ㅣ라○時節이危亂ᄒᆞᆫ제아ᄅᆞᆷ다온士ᄅᆞᆯ

逢ᄒᆞ노니ᄒᆞᄆᆞᆯ며軍旅의수우워류믈免호라 醉從趙女舞歌鼓

秦人盆 古詩예燕趙애多佳人이라ᄒᆞ다秦人盆은李斯ㅣ云擊瓮叩缶者ᄂᆞᆫ眞

秦聲也ㅣ라○全醉ᄒᆞ야셔趙女ᄅᆞᆯ조차춤ᄎᆞ고놀애블러셔秦人의盆ᄋᆞᆯ두드리ᄂᆞ라

子壯顧我傷我驩兼淚痕 少府ㅣ年少而傷甫之老ᄒᆞ니甫ㅣ

ᄀᆞ悲喜ㅣ相兼也ㅣ라○그듸저머셔나ᄅᆞᆯ도라보아슬허ᄒᆞᄂᆞ니내즐겨셔눈므를조

쳐ᄒᆞ노라 餘生如過鳥故里今空村 甫ㅣ歎不得歸故鄕也ㅣ

라○나믄人生이디나가ᄂᆞᆫ새ᄀᆞᄐᆞ니녜사던ᄆᆞ을ᄒᆞᆫ이제뷘村이ᄃᆞ외얫도다

投簡成華兩縣諸子

赤縣官曹擁材傑軟裘快馬當冰雪 京邑ㅅ屬縣이有赤ᄒᆞ니라○赤縣엣官曹ㅣ材傑ᄒᆞᆫ시ᄅᆞ미 벌렷도소니 보ᄃᆞ라온 갗옷과 ᄲᆞᄅᆞᆫ ᄆᆞᄅᆞᆫ 어름과 눈과ᄅᆞᆯ 當ᄒᆞ야 ᄃᆞᆫ니ᄂᆞ다

長安苦寒誰獨悲杜陵野老骨欲折 野老ᄂᆞᆫ甫ㅣ自謂許○長安ㅅ甚ᄒᆞᆫ 치위예 뉘 ᄒᆞ올로 슬허ᄒᆞᄂᆞ니오 杜陵 녯 ᄆᆡ햇 늘그니 ᄲᅧ ᄇᆞᆺ 그ᄎᆞᆯ ᄃᆞᆺᄒᆞ도다

南山豆苗早荒穢青門瓜地新凍裂 陶潛詩예種豆南山下ㅣ라ᄒᆞ다 故秦東陵侯邵平ㅣ種瓜青門ᄒᆞ니라 此ᄂᆞᆫ甫ㅣ言其貧也ㅣ라○南山애 심곤 콩 엄이 일 거츨오 青門에 외 시므던

사히재럭어러뼛도바 鄕里兒童項領成朝廷故舊禮

數絶 頃領成은言其長成也ㅣ라○므올힛아히ᄃᆞᆯᄒᆞᆫ모기이럿고朝廷ㅅ녯버디

禮數ㅣ그첫도다 自然棄擲與時異況乃疎頑臨事

拙 自然히ᄇᆞ리여時로다ᄆᆞᆺ달오니ᄒᆞ믈며迂踈ᄒᆞ며ᄇᆞ려이ᄅᆞᆯ臨ᄒᆞ야踈拙호라

饑臥動即向一旬弊裘何啻聯百結 주려누운다마

다곧열흘올向ᄒᆞ노니헌갓오ᄉᆞᆫ몃ᄃᆡ니어온고ᄃᆞᆯ미주ᄅᆞ미리오 君不見

空墻日色晚此老無聲淚垂血 甫ㅣ望諸子之闕恤也ㅣ

라○그듸는보디아니ᄒᆞᄂᆞ다뷘담횟비치나조히이늘그니소리업시눈므를피를드리

웟노라

贈鄭十八賁

溫溫士君子令我懷抱盡君子ᄂᆞᆫ指鄭賁ᄒᆞ다○溫溫ᄒᆞᆫ士君子ㅣ로소니날로ᄒᆡ여ᄆᆞᅀᆞᄆᆞᆯ다ᄋᆞ게ᄒᆞᄂᆞ다靈芝冠衆芳安得闕親近言鄭賁ㅣ如靈芝芳馨ᄒᆞ야不可闕於親近也ㅣ니라○靈ᄒᆞᆫ芝草ㅣᄆᆞᆺ곳다온ᄇᆡ기이두ᄒᆞᆫ둧ᄒᆞ니엇뎨시러곰親近호ᄆᆞᆯ闕ᄒᆞ리오遭亂意不歸竄身跡非隱言遭亂ᄒᆞ야不得歸鄉ᄒᆞ야奔竄避寇ᄒᆞ니非實隱淪也ㅣ라○亂ᄋᆞᆯ맛나리도리가디몯호ᄆᆞᆯ혜아려보니모ᄆᆞᆯ수머ᄃᆞᆫ니논디라자최隱居ㅣ아니로다

細人尚姑息吾子色愈謹 細小ᄒᆞᆫ 사ᄅᆞ미 姑息홈ᄋᆞᆯ 崇尚ᄒᆞᄂᆞ니 그듸ᄂᆞᆫ ᄂᆞᆺ비치 더옥 삼가ᄂᆞ다 高懷見物理識者安肯嗤 노ᄑᆞᆫ ᄠᅳ데 物理ᄅᆞᆯ 아라 보ᄂᆞ니 알 사ᄅᆞᄆᆞᆫ 이ᄂᆞᆯ 우ᅀᅳ리오 卑飛欲何待捷徑應未忍 言責之官卑ᄂᆞᆫ 以不忍捷道干進也ㅣ니라 ○ ᄂᆞᄌᆞ기 ᄂᆞ라 므스글 기들오고져 ᄒᆞᄂᆞ니오 ᄌᆞᄅᆞᆷ길ᄒᆞ로ᄃᆞᆫ 뇨ᄆᆞᆯ 당당이 ᄎᆞᆷ디 몯ᄒᆞᄂᆞᆺ다 示我百篇文詩家一標準 나ᄅᆞᆯ 百篇ㅅ 글워ᄅᆞᆯ 뵈니 글ᄒᆞᄂᆞᆫ 지빗 ᄒᆞᆫ 본바ᄃᆞᆯ 거시로다 羈離交屈宋牢落値顔閔 以四子로 比鄭賁也ㅣ라 ○ 나ᄂᆞᆫ 그ᄃᆡ로 여희여 ᄃᆞᆫ뇨메 屈原 宋玉ᄋᆞᆯ 사괴오 시의히 ᄃᆞᆫ뇨매 顔淵閔損ᄋᆞᆯ 맛니로라 水

陸迷畏途藥餌駐脩軫 言盜賊이縱橫ᄒᆞ야迷於所往이오但以藥餌로延年也ㅣ라○믈와무틔모의여운길헤이즐ᄒᆞ야ᄃᆞ니고藥餌로ᄂᆞᆫ술위기블운머믈우노라

故人日已遠青史字不泯 녯사ᄅᆞ미날ᄒᆞ마머나ᄠᅳᄅᆞᆫ史記에字ㅣ泯滅티아니ᄒᆞ얫도다

步趾詠唐虞追隨飯葵堇 堇은草名이라言蔬食而行歌堯舜之道ᄒᆞ야以自樂也ㅣ라○거리ᄃᆞ니며唐虞ㅅ時節을입주리고조차ᄃᆞ녀셔葵堇을먹ᄂᆞ니라

數杯資好事異味煩縣尹 두어잔수로됴ᄒᆞᆫ이ᄅᆞᆯ資賴ᄒᆞ고됴ᄒᆞᆫ마ᄉᆞ란ᄀᆞ올員을이ᄀᆞ러이ᄒᆞ노라

心雖在朝謁力與願矛盾 甫ㅣ心雖欲朝謁天

子ㅣ나 筋力이 衰老ᄒᆞ야 與頎不合이 如矛盾也ㅣ라 ○ ᄆᆞᄋᆞ미 비록 朝謁코져 ᄒᆞ논 ᄃᆡ 이시나 ᄒᆡ미 頎과 다 몯ᄒᆞ야 어그릇도다

抱病排金門衰容豈爲敏

病을 아나셔 金門을 미러 들오려 ᄒᆞ나 늘근 양ᄌᆡ 어ᄂᆡ 엇뎨 敏捷히 ᄒᆞ리오

贈衛八處士

人生不相見動如參與商

參商二星이 東西에 間隔ᄒᆞ니라 ○ 人生에 서르 보디 몯ᄒᆞᆫ다마다 參星과 다ᄆᆞᆺ 商星 ᄀᆞᆮ도다

今夕復何夕共此燈燭光

오ᄂᆞᆳ 나조ᄒᆞᆫ ᄯᅩ 엇던 나조교 이 븘비출 다ᄆᆞᆺ ᄒᆞ라

少壯能幾時鬢髮各已蒼

저무믄 能히 몃 맛ᄲᅵ니오 구믿터리 제여곰 ᄒᆞ마 희

도다 訪舊半爲鬼驚呼熱中腸 녯버들무로니 半만鬼ㅣ드외딘 소니 놀라 블리 애ᄅᆞᆯ 덥다노라

焉知二十載重上君子堂 君子ᄂᆞᆫ 指衛處士ᄒᆞ다○스믈 ᄒᆡᆺ마ᄂᆡ 다시 그딋 지븨 올올 ᄯᅳ들 어느 알리오

昔別君未婚兒女忽成行 네 여흴 저긘 그듸 婚姻 아니ᄒᆞ얫더니 오ᄂᆞᆯ 아ᄃᆞᆯ ᄯᆞ리 忽然히 行列이 이럿도다

怡然敬父執問我來何方 父執은 父之執友ㅣ니라○怡然히 아비 버들 恭敬ᄒᆞ야 날ᄃᆞ려 무로ᄃᆡ 어느 ᄯᅡᄒᆞᄅᆞ셔 온다 ᄒᆞᄂᆞ다

問答未及已兒女羅酒漿 무러ᄂᆞᆯ 對答ᄆᆞᄌᆞᄆᆞᆯ 밋디 몯ᄒᆞ야셔 아ᄃᆞᆯ ᄯᆞ리 술와 漿水ᄅᆞᆯ 버리ᄂᆞ다

夜雨翦春韭新炊

間黃粱 밠비예ᄇᆞᆫ밋염규를뷔오새 밥지오매누른조ᄒᆞᆯ섯놋다 主稱會

面難一擧累十觴 主ᄂᆞᆫ亦指處士ㅣ라○主 人이ᄂᆞᆫ ᄎᆞᆷ相會호미어려

우니라닐어ᄒᆞᆫ번드러슈 매열잔ᄋᆞᆯ골포머구라 十觴亦不醉感子

故意長 열잔애도또醉티아니호ᄆᆞᆫ그ᄃᆡ 의녯ᄠᅳ디기로ᄆᆞᆯ感動ᄒᆞ얘니라 明

日隔山岳世事兩茫茫 니잀나래山岳ᄋᆞᆯᄌᆞ 음취개면世事ㅣ냬둘

히다아ᄋᆞ 라ᄒᆞ리리

贈蘇徯

異縣昔同遊各云厭轉蓬 다ᄅᆞᆫᄀᆞ올ᄒᆡ녜ᄒᆞᆫ 티노라제여곰닐

오ᄃᆡ올미ᄃᆞᆫ니ᄂᆞᆫ다븟그 토ᄆᆞᆯ아쳣노라ᄒᆞ다소라 別離已五年尚在

行李中 여희연디ᄒᆞ마다ᄉᆞᆺ히로ᄃᆡ 오히려길녀ᄂᆞᆫ中에이슈라 我馬日

裹息乘輿安九重 乘輿ᄂᆞᆫ天子ㅅ所乘이니 指言天子也ㅣ라○자호

미나날그처가니乘輿ㅣ 九重에便安히겨시도다 有才何棲棲將老

委所窮 棲棲ᄂᆞᆫ無所定處之意라此ᄂᆞᆫ指後 ᄒᆞ다○지조잇ᄂᆞᆫ사ᄅᆞᄆᆞᆫ엇뎨棲棲

히ᄃᆞ니나ᄂᆞᆫ將次ㅅ늘구 메窮困ᄒᆞ몰ᄇᆡ렷도다 子爲郎未爲賤其奈

疾病攻 甫ㅣ爲工部員外郎也ㅣ라○郎官 이ᄃᆞ욀시賤티아니컨마ᄅᆞᆫ그病이

나ᄅᆞᆯ攻治호 매엇뎨ᄒᆞ료 子何面黧黑焉得割心會 그듸 ᄂᆞᆫ엇

테ᄂᆞ치거므니오엇데시러곰ᄆᆞᄋᆞ몰헌히ᄒᆞ리오 巴蜀倦剽劫下愚成土風 巴蜀이盜賊의剽劫호매ᄀᆞᆺ가ᄒᆞᄂᆞ니어류미土風이이럿도다 幽薊已削平荒徼尚彎弓 幽州薊州ㅅ녀기ᄒᆞ마갓가平ᄒᆞ나이거츤ᄀᆞ인오히려화ᄅᆞᆯ혀ᄂᆞᆺ다 斯人脫身來豈非吾道東 斯人은喆後ᄒᆞ니脫寇亂而來蜀也ㅣ라鄭玄이學於馬融ᄒᆞ다가辭歸이늘融曰鄭生이ᄉᆞᄎᆞᆫᄒᆞ니吾道ㅣ東矣라ᄒᆞ다○이자ᄅᆞᆫ이모ᄆᆞᆯ바사나오니엇데우리되東녀크로오디아니리오 乾坤雖寬大所適裝囊空言徯之貧也ㅣ라○하ᄂᆞᆯ과ᄯᅡ쾌비록어위오크나가논듸논行裝앳囊橐이뷔엿도다 肉食哂菜色

少壯欺老翁 고기ㅣ그린ᄂᆞ믈먹ᄂᆞᆫ비ᄎᆞ우 으며져믄사ᄅᆞᄆᆞᆫ늘근한아비
를欺侮ᄒᆞ ᄂᆞ니라 況乃主客間古來偪側同 ᄒᆞ믈며 主人과
나그ᄂᆡᆺᄉᆞ이에녜로오매 어려우미ᄒᆞᆫ가지니라 君今下荊揚獨帆
如飛鴻 그듸이제荊揚으로ᄂᆞ려가ᄂᆞ니외 ᄅᆞ왼빗ᄃᆞᆯ기ᄂᆞᆫ그려기곤도다
二州豪俠場人馬皆自雄 言荊揚二州之人 이豪俠自雄ᄒᆞ야
以欺謾於客也ㅣ라○두ᄀᆞ올ᄒᆞᆫ豪俠잇 ᄡᅥ희니사ᄅᆞᆷ과ᄆᆞᆯ왜다제雄壯ᄒᆞᄂᆞ니라 一
言甘飢寒再請甘養蒙 蒙은蒙昧未明ㅣ니 此ᄂᆞᆫ欲其晦迹ᄒᆞ야
以自全也ㅣ라○ᄒᆞᆫ번請ᄒᆞᆫ든주리여치우 믈도ᄒᆡ너기고다시請ᄒᆞᆫ든養蒙ᄒᆞ몰도ᄒᆡ

너기라

君不見簡蘇徯

君不見道邊廢棄池君不見前者摧折桐百年死樹中琴瑟一斛舊水藏蛟龍言枯桐이可以爲琴瑟이니ᄯᅩ有才者ㅣ終見用也ㅣ라藏蛟龍은ᄯᅩ士之守所養也ㅣ라○그듸눈 긼ᄀᆞᅀᆡ ᄇᆞ리옛ᄂᆞᆫ 모ᄉᆞᆯ 보디 아니ᄒᆞᄂᆞᆫ다 그듸는 알ᄑᆡᆺ 것드럿ᄂᆞᆫ 머귀남ᄀᆞᆯ 보디 아니ᄒᆞᄂᆞᆫ다 百年을 주근 남기 거믄고 ᄆᆡᆼᄀᆞ로매 맛고 ᄒᆞᆫ 셤만ᄒᆞᆫ 녯 므레 蛟龍이 갈맛ᄂᆞ니라

丈夫蓋棺事始定君今幸未成老翁何恨憔悴在

山中言丈夫事業이死而後定이라未可知其終窮也ㅣ라○丈夫ᄂᆞᆫ棺槨ᄉᆞ둡게룰다ᄆᆞ아이리비롯一定ᄒᆞᄂᆞ니그듸이제幸혀늘근한아비ᄃᆞ외디몯ᄒᆞ얏ᄂᆞ니樵悴히뭇가온ᄃᆡ이슈믈므슴ᄒᆞ리오深山窮谷不可處霹靂魍魎兼狂風此言魍其出也ㅣ라○기픈뫼콰기픈묏고련可히잇디몯ᄒᆞ리니벼락과귓것과ᄆᆡ어려운ᄇᆞᄅᆞ미兼ᄒᆞ얏ᄂᆞ니라

贈李白

二年客東都所歷厭機巧인ᄒᆡᄅᆞᆯ東都애나그내ᄃᆞ외야ᄃᆞ니ᄃᆞᆫ니논바애機巧ᄒᆞᆫ사ᄅᆞᄆᆞᆯ아쳐라ᄒᆞ노라野人對羶腥蔬食常

不飽須溪云野人所善者ㅣ蔬食ㅣ언마ᄅᆞᆫ第對腥羶故로思青精飯耳니라○ᄆᆡ햇사ᄅᆞ미비취ᄒᆞ거ᄂᆞᆯ相對ᄒᆞ야셔쥐바ᄇᆞᆯ長常비브르먹디몯호라豈無青精飯使我顏色好青精飯은食之延年ᄒᆞᄂᆞ니라○엇뎨青精飯이내ᄂᆞᆺ비ᄎᆞᆯᄒᆞ여됴케ᄒᆞᆯ거시업스리오苦乏大藥資山林跡如掃ᄅᆞ上은皆甫ㅣ自叙ᄒᆞ다○심히큰藥ᄒᆞ야머굴資質이입ᄂᆞᆯ서山林에자최ᄡᅳ론ᄃᆞ시업스니라李侯金閨彥脫身事幽討金閨는金馬門也ㅣ니凡待詔者ㅣ必在此門ᄒᆞᄂᆞ니白이嘗供奉翰林ᄒᆞ니라幽討는討尋幽趣也ㅣ라○李侯ᄂᆞᆫ金閨옛後彥이니모ᄆᆞᆯ바사나幽深ᄒᆞᆫᄃᆡ討尋ᄒᆞ논일ᄒᆞᄂᆞᆺ다亦有梁

宋遊方期拾瑤草 瑤草ᄂᆞᆫ珊瑚樹之類ㅣ니 仙家ㅣ以合丹藥服餌ᄒᆞᄂᆞ니라 時예白이將遊梁宋ᄒᆞ야以求神仙之術ᄒᆞ니다 ○ ᄯᅩ梁宋ᄋᆞ로노로미잇ᄂᆞ니 瑤草주어머구믈뮈야ᄒᆞ로期約ᄒᆞ얏다

戲贈鄭廣文虔兼呈蘇司業源明

廣文到官舍 繫馬堂階下 廣文이마ᄋᆞ래니르러가堂ㅅ버텅이래ᄆᆞᄅᆞᆯᄆᆡ놋다

醉卽騎馬歸 頗遭官長罵 술醉거든곧ᄆᆞᆯᄐᆞ도라와ᄌᆞ모官長ᄋᆡ구지라ᄆᆞᆯ맛나놋다

才名三十年 坐客寒無氈 才名잇건디셜흔ᄒᆡ로ᄃᆡ안ᄌᆞᆫ소ᄂᆞᆫ치워도시욕도업도다

賴有蘇

司業時時與酒錢 힝혀잇ᄂᆞᆫ蘇司業이時時예술살돈ᄋᆞᆯ주ᄂᆞ다

戲贈二友

元年建巳月郎有焦校書 ○上元元年也ㅣ라○元年建巳ㅅᄃᆞ래郎이焦校書ㅣ잇도다

自誇足膂力能騎生馬駒 生ᄋᆞᆫ未調習也ㅣ라○스싀로자랑호ᄃᆡ등이럿히미하질드디아니ᄒᆞᆫ몰삿기ᄅᆞᆯ能히ᄐᆞ노라ᄒᆞᄂᆞ다

一朝被馬踏脣裂板齒無 板齒ᄂᆞᆫ大齒也ㅣ라○ᄒᆞᄅᆞᆺ아ᄎᆞ미몰볼오몰니비입시우리뼈여디고큰니업시ᄃᆞ외도다

壯心不肯已

欲得東擒胡 健壯ᄒᆞᆫ모ᅀᆞ미아디아니ᄒᆞ야東녀킈가다대자보몰얻고져

ᄒᆞ다 矣

元年建巳月官有王司直 元年建巳ㅅᄃᆞ래비스리王司直이

잇도다 馬驚折左臂骨折面如墨 ᄆᆞ리놀라왼불히것그니

ᄲᅧ것고ᄂᆞᆾ치먹빗ᄀᆞᆮ도다 駑駘漫染泥何不避雨色 言騎駑馬

泥途ᄒᆞ야墮而折臂ᄒᆞ니此ᄂᆞᆫ寓躁進之戒ᄒᆞ다○駑駘ᄂᆞᆫ卒절업시ᄒᆞᆯ귀믄ᄂᆞ니것뒈

빗ᄉᆞ비ᄎᆞᆯ避티아니ᄒᆞ니도 勸君休嘆恨未必不爲福 塞上翁이

失馬ᄒᆞᆫ대人皆吊之어ᄂᆞᆯ翁曰何知非福이리오數月이오其馬ㅣ引駿馬而來어ᄂᆞᆯ人이

皆賀之ᄒᆞᆫ대曰何知非禍ㅣ리오其子ㅣ騎墮折體어ᄂᆞᆯ人皆吊之ᄒᆞᆫ대曰何知非福이

리오 胡人이 大入ᄒᆞ야 丁壯이 戰死ㅣ어늘
其子ㅣ 獨以跛로 獲保全ᄒᆞ니라 ○ 勸ᄒᆞᆫ든
그듸ᄂᆞᆫ 嘆恨ᄒᆞ디 말라 반ᄃᆞ기
福ᄃᆞ외디 아니홀 줄 아녀니라

分類杜工部詩卷之十九